

2017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 기본소득팀'
연구발표회



청소년과 기본소득 실험의 만남

직접 현금 지급은 청소년의 삶을 어떻게 바꾸나

주최
인권교육센터 들, 국회의원 권미혁

후원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본 연구는 2017년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 기본소득팀'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이 지원하고 함께 했습니다.

04 식순

05 '청소년 기본소득팀' 소개

07 축사_국회의원 권미혁

연구결과발표문

10 청소년과 기본소득실험의 만남:
'모든 청소년에게 조건 없는 현금 직접 지급'의 의미와 필요성 탐구
_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 기본소득팀

토론문

74 청소년 기본소득,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희망_스덴

76 기본소득이라는 넓은 품안에서 노는 청소년을 꿈꾸며_김학준

79 보호와 자립의 경계에서 청소년기본소득을 고민하다_이승윤

식 순

2017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 기본소득팀’ 연구결과 발표회

일시 2017년 11월 14일(화) 10시 ~ 12시 30분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사회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10시 ~ 10시10분	서로 인사, 청소년 기본소득팀 소개
10시 10분 ~ 10시 50분	[발제] 청소년과 기본소득실험의 만남 ‘모든 청소년에게 조건 없는 현금 직접 지급’의 의미와 필요성 탐구 발표자: 날맹(문명진) 인권교육센터 ‘들’
10시 50분 ~ 11시	쉬는 시간
11시 ~ 11시 45분	[토론 1] 스텐 청학고등학교 학생 [토론 2] 김학준 늘푸른자립학교 교사 [토론 3] 이승윤 이화여대 교수
11시 45분 ~ 12시 30분	질의응답과 종합토론

'청소년 기본소득팀' 소개

■ '인권교육센터 들'은...

〈인권교육센터 '들'〉은 2008년 2월, 인권교육의 원칙을 버리면서 풍성한 실천을 일구어내기 위해 모인 인권활동가들이 창립한 인권교육 단체입니다. '들'은 인권교육이 인권교육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실천하며,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비롯한 인권의 주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연대의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통해 지지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인권교육센터 '들'〉이 인권교육 활동을 하며 계속해서 연대하고 함께해온 활동이 바로 청소년인권 활동이었습니다. 인권교육이 인권의 현실과 결코 따로 갈 수 없다는 생각 속에서, '들'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등에 연대하면서 청소년노동자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 등에 관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위기 상황에 놓인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활동가들을 만나며 청소년인권의 이야기를 나누고 청소년인권 논의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자몽과 함께한 '몽실' 프로젝트는...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은 2015년부터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사업 - 자몽(自夢)' 사업을 통해

청소년자립지원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들’은 2015년부터 ‘자몽’ 참여기관의 모니터링 단체로서 ‘몽실(夢實)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자몽’을 탄실하게 만들고, ‘자몽’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몽실’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모니터링의 본래 목표는 지원을 받는 기관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함께 헤아리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몽실’은 형식적인 평가나, 현장과 멀리 떨어진 검사 또는 감시처럼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현장을 응원하는 벗이 되어 모니터링 역할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모니터링의 핵심은 ‘자몽’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서로 만나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자극이 되며, 청소년자립에 대한 더 풍부한 아이디어와 실천이 꽃필 수 있도록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매월 진행된 네트워킹과 교육을 위한 만남, 현장방문 인터뷰, 현장 지원 교육 등이 ‘몽실’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구체적 활동입니다. 더불어 현장의 고민을 받아안아 매년 한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연구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교육/네트워킹모임과 현장모니터링 그리고 연구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과정 속에 청소년 자립지원현장과 인권이 만날 수 있는 방법과 담론을 고민해왔습니다.

■ ‘몽실’의 지난 연구 주제는...

〈2015년〉

- 청소년의 자립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6개의 대안적 자립 개념
- 청소년 자립, 기술에서 역량으로: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역량 접근

〈2016년〉

- 마음의 관리? 마음의 권리!: 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 무엇을 묻고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 ‘청소년 기본소득팀’은...

올해는 ‘자몽’ 모니터링과 함께 ‘청소년 기본소득팀’을 별도로 꾸리면서 기존의 선별적이고 서비스 제공 중심의 복지를 넘어 모든 청소년에게 조건 없는 현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한 그런 새로운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 넘어서야 할 논리와 장벽들은 무엇인지, 청소년 인터뷰를 통해 길어진 이야기들을 인권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축사

‘모든’ 청소년 대상 ‘조건 없는’ 현금 직접 지원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헌법개정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권미혁입니다.

인권 교육에 앞장서 활동하고 계신 인권교육센터 ‘들’과 함께 국회에서 뜻 깊은 발표회를 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청소년 기본소득 연구를 맡았던 ‘청소년기본소득팀’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발표회를 준비해주신 담당자, 실무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현금으로 지원하는 기본소득은 일자리의 부족과 불평등의 심화로 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논의는 그동안 성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일부 논자들은 기본소득의 대상을 성인으로 제한하기도 하고,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사례들에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는 합니다.

특히 우리사회는 청소년에 대해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 여기는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청소년에게는 학교 안에서의 학습만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일하는 청소년에 근로기준법 교육이 부족하고, 근로를 보호하는 제도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청소년이 학교 및 가정 밖에 있을 경우 청소년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위기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로 여성 청소년은 성매매라는 극단적인 길로 들어서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오는 인권의 침해를 해소할 수 있기도 합니다. 청소년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며 존엄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원조달이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기본소득 논의가 확장되고 구체화될 때 실현가능한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 지닌 의미를 살려 더욱더 좋은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회에서 청소년들에게 기본소득이 주는 의미 등 청소년과 기본소득의 접점을 다방면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기본소득의 논의를 더 진전시키고, 청소년의 권리를 크게 신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자리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발표회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7.11.14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 권미혁

연 구 결 과 발 표 문

청소년과 기본소득실험의 만남

‘모든 청소년에게 조건 없는 현금 직접 지급’의 의미와 필요성 탐구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 기본소득팀

I. 연구에 들어가며

‘인권교육센터 들’은 2015년부터 ‘위기청소년’¹ 자립지원기관들을 만나면서 자립이라는 언어에 인권의 숨결을 불어넣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우리는 자립이라는 말이 “비상(非常)이 일상”인 삶을 살아가는 그/녀들에게 조금은 덜 외롭고 조금은 덜 초조하며 조금은 덜 삭막하고 조금은 덜 스산한 언어가 되기를 바랐다. ‘홀로 살아남아 너의 쓸모를 증명하라’는 기존의 자립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여섯 개의 대안적 자립 개념을 제안했다.² 그리고 우리는 이 여섯 개의 대안적 자립 개념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청소년들의 몸과 정신, 태도, 습관, 능력들에 하나하나 점수를 매겨 그/녀들의 자립준비도를 측정하려 드는 자립척도부터 폐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아마티아 센과 마사 누스바움이 중심이

- 1) ‘위기청소년’이라는 개념과 그 개념이 유통되는 과정에는 대개 문제, 일탈, 위험, 결핍, 부적응, 장애, 질병 등의 이미지가 결부되어 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삶의 특정한 위기 국면을 통과하는 청소년들을 ‘위기청소년’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분류하여 접근하는 것은 타당한가, 삶의 다양한 굴곡을 ‘위기’라는 말 하나로 집단화하는 것은 타당한가, 이러한 분류 자체가 낙인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럼에도 ‘위기청소년’이라는 말은 법·정책적 기반을 갖고 있기에 널리 쓰이고 있어 이를 마땅히 대체할 말을 찾아내기도 힘들다. 이에 잠정적으로 이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우리가 가진 문제의식과 긴장을 드러내기 위해 ‘위기청소년’에 따옴표를 붙여 사용하기로 한다.
- 2) 유통하는 자립, 조건 없는 자립, 지금 현재의 자립, 지속 가능한 자립, 관계적 자립, 주체적 자립.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면 된다.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의 자립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6개의 대안적 자립개념”, 「“청소년 자립” 밖에서 자립 찾기」 몽실 연구발표회 자료집(2016년 2월 16일).

된 역량(capability) 연구들을 참고하여 우리는 청소년의 존엄한 삶을 가능케 하는 자유이자 기회로서 ‘청소년 자립 역량’ 목록을 재구성했다.³⁾

청소년 자립 역량 목록 중 ‘경제적 자율성’을 제안한 배경에는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지급되는 용돈, 수급비, 노동소득 등 어떤 형태의 소득이든 예측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생계 가능 소득을 가지는 것이 ‘시민으로의 삶’과 연결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제적 궁핍은 사회적 기회를 축소시키고 경제권을 권 보호자에게 종속적 위치를 만든다는 점에서 ‘평등한 시민’의 위치를 빼앗는다. 특히 당장 돈이 없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에 갈 수 없거나 오천 원, 만원 때문에 결국 경찰서에 가게 되거나 성매매를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청소년들을 위기지원 현장의 실무자들은 자주 만나게 된다고 했다. 여기에서 이른바 ‘위기청소년’의 삶에서 ‘현금’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닐까, 질문이 이어졌다. 그런데 현실의 사회복지 체계에서는 청소년에게 현금보다는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낫다는 전체 그리고 그냥 현금을 주면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낭비’를 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결합하여 그나마 지급되는 얼마 안 되는 현금마저도 용처가 제한되거나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당장 ‘자립’이 시급한 이들에게 ‘자립준비’라는 이름의 서비스만이 아닌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존엄한 삶을 위한 역량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토대로서 기본소득 개념이 갖는 매력이 우리 눈에 들어왔다. 기본소득은 ‘정치공동체가 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주기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현금’이다.⁴⁾ 청소년들이 부모의 말 혹은 시설의 규칙을 따르지 않더라도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삶의 특정 국면에서 다른 선택,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자유’이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질문을 풀어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급증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관심 속에 청소년에 주목한 파일럿(시범사업)이나 연구 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자체 단위가 아닌 국가 차원의 실험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았던 핀란드의 경우, 복지수당을 받고 있는 만 25세에서 58세 사이의 국민 중 무작위 선정된 2,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⁵⁾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2017년 6월부터 시행한 기본소득 파일럿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8세에

3) 주요 범주로는 • 자기결정과 유대(존엄하게 대접받기/사회적 유대 조직하기/다른 종(species)과 공존하기) • 안전과 존엄(생명과 건강 이어가기/자율적 공간 갖기/신체적 통합과 안전 확보하기) • 감수성의 확장(감각 • 생각 • 표현의 주인되기/감정에 깨어있기) • 시민으로서의 삶(경제적 자율성 갖기/일에 대한 통제권 갖기/정치적 힘 갖기) • 인생예찬(놀이)와 같은 다섯 가지 영역이 제안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면 된다.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 자립, ‘기술’에서 ‘역량’으로: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역량 접근”, 몽실 연구발표회 자료집(2016년 2월 16일).

4)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홈페이지. “기본소득이란?” <http://basicincomekorea.org> (2017년 10월 20일 접속)

5) 선정된 이들은 노동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직장을 구하는 등 추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2년간 월 560유로(약 70만원)를 지급받는다.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KELA) 홈페이지 참고. <http://www.kela.fi/web/en/basic-income-experiment-2017-2018> (2017년 10월 20일 접속)

서 64세 사이의 주민이다.⁶ 기본소득 파일럿 준비 단계에서 올 초에 진행한 주민의견수렴 보고서에는 수급 자격을 더 넓히려는 제안의 일례로 독립하여 살고 있는 만 16-17세 청소년도 포함하는 것이 적혀있지만 실제 시행에 반영되지는 않았다(The Ontario Government, 2017).

설령 청소년이 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된 경우라도 지급 수준을 달리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스위스의 경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스위스 지부 등이 주축이 된 기본소득시민운동이 수년간 활발하게 진행됐고, 2013년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13만 명의 서명을 받아 헌법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 기본소득안은 2016년 6월 열린 국민투표에서 23%의 찬성표를 얻고 결국 부결되기는 했지만, 무조건성과 보편성 등의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철학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윤홍식, 2017). 이 안이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선별을 하지 않았다는 점, 즉 특정 연령대만이 아닌 청소년도 기본소득을 받는 주체에 포함이 되었지만 지급 액수를 보면 성인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289만원), 미성년자에게 650스위스프랑(약 75만원)이라는 점(경향신문, 2016)에서 차이는 존재한다. 인도 Madhya Pradesh 주에서 2011년 6월부터 약 18개월간 진행된 기본소득 파일럿의 경우 선택된 지역의 마을 주민 모두에게 지급됐으나 아동에게 성인 지급액의 절반이 지급된 바 있다.⁷

한편, 한국에서는 현금 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 중 기본소득 논의와 함께 많이 거론된 정책이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만 19~29세 청년이 정책의 대상이고⁸, 성남시 청년배당은 만 24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다.⁹ 두 정책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철학에는 차이¹⁰가 있지만 둘 다 청소년이 정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성남시가 '청년배당'의

-
- 6)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을 알리는 활동을 해온 휴 시걸(Hugh Segal) 전 상원의원이 프로젝트 특별자문위원으로 임명됐고, 2016년 11월 기본소득 실험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종합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설계 안의 골자는 이렇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참가자들에게 매달 최소 1,320달러(온타리오 주의 저소득 기준선의 75% 선)를 기준으로 참가자의 소득이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 방식이다. 이에 더하여 장애인 참가자에게는 500달러의 추가소득을 지급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정희(2017), Segal(2016)을 참고.
- 7) 총 6,000명가량 대상으로 실험했고, 개별 성인에게 월 4.40달러(300루피), 개별 아동에게 월 2.20달러(150루피)를 지급함. 더 자세한 내용은 Standing(2013a) 참고.
- 8)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해당 연령대의 청년(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별한 뒤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이 지급된다. 서울시 청년정책홍보 페이지 "청년수당 Q&A" 참고. <http://mediahub.seoul.go.kr/youthhope/> (2017년 10월 20일 접속)
- 9)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해당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연간 100만원)에 상당하는 지역화폐(상품권)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고. 한겨레신문. "성남시 '청년배당' 오해와 진실" <http://www.hani.co.kr/> (2017년 10월 20일 접속)
- 10) 서울시 청년수당이 대상자를 '선별'하되 '구직활동을 위한 비용'이라는 조건은 달렸으나 사실상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는 현금을 지급한다는 특징이 있다면, 성남시 청년배당의 경우 나이와 주거 기간만 충족이 된다면 다른 별도의 심사 없이 누

확대 버전으로 재학여부와 관계 없이 만 16~18세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배당’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소식(뉴시스, 2017)이나 서울 성북구가 2017년 6월에 도입, 시행한 아동·청소년동행카드¹¹의 사례처럼 부분적이지만 현금 지급 형태의 실험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의 기류 또한 감지되고 있다.

서비스 지원이 아닌 현금이라는 측면에 주목했을 때, 청소년 대상 현금 급여 방식의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동발달지원계좌¹²나 희망키움통장¹³등 국가가 개인의 저축액에 지원금을 보태는 방식의 제도들의 경우 일정 소득 수준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는 점, 혹은 장애아동수당¹⁴의 경우 ‘등록 장애인’인 동시에 일정 소득 수준 이하라는 조건에 부합할 때 지원이 된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준다’는 기본소득의 지향에 부합하지 않는다.

선별이 아닌 보편을 지향한다는 점과 더불어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확연히 구분되는 지점은 가구 지원이 아닌 개인에게 준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가 2018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 급여 형태의 복지라고 할 수 있다.¹⁵ 그런데 아동수당(children’s allowance; child benefit)은 개별 아동을 기준으로 지급되긴 하지만 아동을 양육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라는 의미에서 가족수당(family benefit; family allowance)으로 불리기도 한다(김진석, 2016).

구나 지급받지만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현금 급여라는 특징이 있다.

- 11)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학교 1학년 혹은 만 13세 청소년 그리고 해당 학년/연령에 속하는 성북구 체류 외국인에게 반기당 5만원씩 쓸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화, 예술,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운영되고 있고, 가령 참고서를 구입하거나 음식을 사먹거나 노래방에서 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성북구청 홈페이지 참고. <https://sb.purmee.kr/about/intro.asp> (2017년 10월 20일 접속)
- 12) “저소득 아동의 빈곤 탈출을 위해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으로 같은 금액을 적립해 주어 아동이 만18세가 된 후 학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등으로 사용되도록 목돈을 만들어주는 예금.”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식 블로그 참고. <http://blog.bokjiro.go.kr/363> (2017년 10월 20일 접속)
- 13) “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의 가구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국가가 해당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33만원을 지원하면서 3년 만기 시 지급하는 통장.” 보건복지부 복지로 페이지 참고. <http://www.bokjiro.go.kr> (2017년 10월 20일 접속)
- 14)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중증/경증”, “시설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월 2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현금 급여 서비스. 보건복지부 복지로 페이지 참고. <http://www.bokjiro.go.kr> (2017년 10월 20일 접속)
- 15) 기존의 가정양육수당이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고 집에서 영유아(최대 84개월 미만)를 돌보는 부모에게 월 10~2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 급여라면, 아동수당은 집에서 돌보느냐 보육시설을 이용하느냐에 상관없이 아동에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 정책포털 정책브리핑 페이지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월 10만원… Q&A” 참고. <http://www.korea.kr> (2017년 10월 20일 접속)

앞에서 살펴본 기본소득 논의에서 청소년¹⁶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더 적은 액수를 지급받는 이유에는 지금의 사회복지체계에서 청소년이 독립적 개인으로 상정되기보다 가정이나 시설을 통한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라는 전제가 자리한다. 가구 중심 지원 속에서 설령 부모의 경제력이 있더라도 생계에 대한 자기결정권 없이 부양을 받는 위치에 놓인 청소년은 관계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놓이기 쉽다. 동시에 청소년 자신이 피부양자 1인의 몫으로 있을 때 가구에 지원되는 수급비가 그나마 늘어나기 때문에 친권자와의 갈등이 있더라도 벗어나려는 선택을 가로막는 족쇄로 작동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사회경제적 약자로서 청소년 집단의 위치성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때 ‘모든 청소년에게 조건 없는 현금 직접 지급’은 청소년 인권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모든 청소년에게 조건 없는 현금 직접 지급’을 떠올릴 때 함께 더 고려해야 하는 지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모든 청소년에게 조건 없는 현금 직접 지급”에 주목한 이유는 아래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한다.

첫째, 기본소득의 정의에 담긴 ‘모든 개인’에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는가, 즉 청소년이 독자적인 경제적 주체로 전제되었는가 하는 질문이다. 일부 논자들은 ‘성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을 제한적으로 정의하기도 한다.¹⁷ 하지만 우리는 여러 이유로 경제생활을 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청소년이 다른 누군가(대개 비청소년)에게 종속되거나 눈치를 봐야하는 위치에 놓이는 보편적 약자성에 주목했다. 경제적 시민권의 주체로 여겨지지 않을 때 소득에 대한 청소년의 요구나 필요는 비가시화되기 쉽다. 혹은 고려되지

16) 누구를 청소년이라고 볼 것인가에 있어 현행 법률에는 각기 다른 정의들이 존재한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제3조1항)이고,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제2조1항)을 뜻한다. 한편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인 사람”(제3조1항)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제1조)이다. 청소년인권이 말하는 ‘청소년’은 18세나 19세나 숫자와 무관하게 “어디서 감히 어린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위치에 놓인 존재들이다. 가령 청소년 참정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서 곧잘 등장하는 표현들, 즉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고 여겨지고 그에 따라 권리의 온전한 주체로서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쉬 치환되는 위치에 놓인 존재가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특별한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과 청소년을 포괄하는 용어로 청소년을 사용하고 있다.

17)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Should a Basic Income be paid to children?” <http://basicincome.org/basic-income/faq/#children> (2017년 10월 20일 접속)

라도 여전히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는다는 전제와 맞물리면서 기본소득 논의 속에서도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비청소년에 비해 적게 책정되거나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둘째, ‘모든 청소년’이라는 말에는 자산 조사를 통해 ‘충분히’ 가난하고 비참하다는 것을 증명한 이에게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겨있다. 청소년은 생계를 누군가에게 의탁해야 한다는 공통의 위치성을 갖고 있지만 청소년 내부에서도 가정 형편이나 주거조건(집/시설/거리 등)에 따라 지원의 시급성에서 차이가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모욕과 낙인을 필연적으로 부르는 ‘선별’의 방식을 피하고자 하는 고민이다.

셋째, ‘조건 없는 현금’은 청소년 연령대에는 현금 급여보다는 교육이나 훈련 등 서비스 지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전제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라는 말이 무색하게 청소년 지원체계에서는 그 연령대에 부합하는 규범과 그에 따른 지원을 중요하게 여기는 통념이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립 지원이란 이름으로 학력 취득 혹은 취업 준비를 위한 지원 체계가 주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 ‘가난한 자는 합리적 소비를 하지 못할 것이다’는 편견이 더해지면 “PC방 가거나 화장품 사는데 쓰일 것이 뻔한” 현금을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지원 방식이 되고 만다. 미숙하기 때문에 ‘조건 없는 현금’은 안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직접 돈을 써보는 경험을 통해 ‘성숙’할 기회를 갖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이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신뢰이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해의 확장과도 연결되어 있다.

넷째, ‘현금 지급’ 사이에 ‘직접’이란 말을 넣은 이유는 설령 청소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조건이 붙지 않은 현금이 지급되더라도 다시금 돌봄과 보호라는 명목 하에 본인이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다. 기본소득의 ‘개별성’ 원칙에는 기존 지원시스템이 ‘규모의 경제’¹⁸⁾를 근거로 가구 단위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다. 이때 개인 단위의 시민권을 전제로 한 ‘보편성’ 원칙 속에 이미 ‘개별성’의 원칙이 내포되어 있다는 분석(서정희, 김교성, 백승호, 이승윤, 2017)

18) “주거서비스, TV,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각종 생활용품 등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절약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가구에 필요한 소득을 계산할 때 가구원수 그대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첫 번째 성인에게는 1, 두 번째 성인부터는 0.7, 14세 이후 아동에게는 0.5의 가중치를 부여하거나(OECD Original scale), 첫 번째 성인에게는 1, 두 번째 성인부터는 0.5, 14세 이후 아동에게는 0.3의 가중치를 부여(Modified OECD scale)하는 것(남상호, 2012: 2).” - 이견민 초청간담회 (2017.06.07) 발제문.

에 동의하면서도 늘 그럴 듯한 이유로 '개인'이 아닌 '떨린 존재' 취급을 받는 청소년의 위치를 떠올렸을 때 '직접 지급'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자립'의 의미를 '홀로'의 차원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면, 설령 연령이나 '장애' 등의 조건 속에서도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존중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념할 필요성을 '현금 직접 지급(direct cash transfer)'이란 표현을 통해 담고자 했다.

위의 질문들에 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관련 문헌과 국내외 사례 스터디를 시작했고, 기본소득 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와 연구자 및 '위기청소년' 자립지원현장 활동가 초청 간담회¹⁹를 가졌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규명하고자 하는 질문들을 좀 더 가다듬었고, 청소년자립지원 현장 실무자 및 장애아동과 함께 사는 부모, '찾아가는동주민센터' 마을사업 담당자 등을 만나 '청소년+기본소득'에서 살펴야 할 지점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했다. 우리가 만난 비청소년²⁰들의 목록을 아래 표에 담았다.

이름	소속/정체성	인터뷰 일시
김선옥	청소년 자립패 이상한나라 활동가	2017.6.22
신선웅	늘푸른자립학교 실무교사	2017.6.23
우진아	발달장애자녀들을 둔 부모. 장애인권활동가	2017.6.27
김영원	지역아동센터 교사	2017.6.30
윤혜경	(전) 찾아가는동주민센터 마을 업무 담당자	2017.7.6
변미혜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엑시트) 활동가	2017.9.5

그리고 아래와 같은 청소년들을 만나 기본소득이 그/녀들의 삶과 어떻게 만나는지, 어떤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듣고자 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배경과 우리가 만날 때 주목했던 삶의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19) 1차 초청간담회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연구자이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이경민 님,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활동가인 스밀라 님을 모시고 진행했다(2017년 6월 7일). 2차 초청간담회는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에서 활동하는 변미혜 님을 모시고 청소년 인터뷰 녹취를 함께 분석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2017년 8월 23일).

20) 민법상 성년(成年)에 도달한 이들을 일컫는 성인(成人)이라는 말은 미성년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완성되지 못한, 아직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에 놓인 존재라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 가능한 말이다. 또한 성인과 동의어로 자주 쓰이는 어른이라는 말에는 '얼이 익은 사람', 즉 어린이와 청소년은 '얼이 아직 어린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비청소년'이라는 용어로 대체해서 쓰기로 한다.

이름(가명)	나이 ²¹	성별	재학 여부	비고	인터뷰 일시
김지영	20세	여	-	여성자활매장에서 근무 중. 17살 때 탈가정했고, 현재 (인터뷰 시점) 월세 30만원을 내며 혼자 거주.	2017.7.26
박희상	18세	남	고2	기초생활수급 가정에 거주하며 지역아동센터에 다님.	2017.7.27
김진섭	24세	남	-	지체장애3급. 기초생활수급자. 초등학교 1학년 때 부터 1인 가구로 지원을 받아옴. 현재 임대주택에서 혼자 거주.	2017.7.27
노다예	19세	여	고3	원가정에 거주하며 지역아동센터 다니고 있음. 차상위 계층에 속했다가 현재 '탈수급'한 상태.	2017.7.28
이다은	20세	여	-	10대 시절 탈가정 경험이 있으며, 원가족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권을 분리한 경험이 있음. 현재 친구 2명과 동거.	2017.7.29
윤소영	17세	여	고1	진보 성향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받는 중산층 가정. 대안학교 재학 중.	2017.7.31
임현주	18세	여	고2	특성화고 재학 중. 대학 진학보다는 가정 형편을 고려하여 취업을 우선 생각하고 있음. 현재 한부모 원가정에서 거주.	2017.7.31
조민정	18세	여	-	탈가정, 탈학교 경험 있음. 현재 청소년을 위한 인턴십 센터와 알바를 병행 중. 현재 원가정과 남자친구 집을 오가며 거주.	2017.8.4
김다빈	18세	여	고2	자립형 공립고 재학 중. 원가정 거주. 청소년 인권단체 회원.	2017.8.9
루카	20세	남	-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당사자 정체성으로 활동 중. 고등학생 때 청소년 유니온에 가입하여 활동. 현재 원가정에서 거주하나 곧 독립을 계획.	2017.8.16
이채림 이윤정	14세	여	중1	2017년 상·하반기 지급된 서울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수령 및 사용 경험자. 2인 함께 인터뷰 진행.	2017.9.11
이정주	19세	여	-	2017 '청소년자립지원 사업 자몽' 참여 기관 청소년.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면 3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현금 10만원을 지급하는 프로젝트에 연속 2회 참여 경험. 탈학교 이후 검정고시로 입시 준비.	2017.9.14
김수지	19세	여	-	중2 때 탈가정한 이후 쉼터, 친구집 등에서 거주. 지금까지 알바를 통해 스스로 부양하고 있음. 현재 청소년 자립팜에서 거주.	2017.9.17

21) 나이는 인터뷰가 진행된 2017년을 기준으로 만 나이가 아닌, 연(年) 나이로 기재하였다.

II. 사회경제적 약자로서 청소년의 위치성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1. '빈곤', 청소년 모두의 문제

“아이가 어른과 다른 점은 단 하나,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뿐입니다. 생계를 어른에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어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²²

“중위소득 150% 이상에 달한다는 그 부는 내가 아니라 부친에게 속해 있다. 내가 그 돈을 얻기 위해서는 나보다 가정 내에서 훨씬 권력이 많은 부친과 협상을 해야 한다. 결코 평등한 주체끼리의 협상이 아닌 그 과정은 대개 내게 불리하다. 그 시간은 나의 주체성을 잠시 뒷전으로 하고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만을 담은 ‘딸의 가면’을 쓰는 비굴한 시간이기도 하다.”²³

기본소득의 ‘개별성’ 원칙은 가족 내에서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존재들의 지위 향상과 연결된다. ‘용돈’이란 이름의 돈을 받기 위해 “비굴한 시간”을 견디기도 하는 청소년 개인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발상은 “청소년을 부모의 종속물로 보지 않는 것, 청소년을 경제적 주체로 인정하는”²⁴ 관점을 전제한다. “내 말 안 들을 거면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 앞에서 작아지지 않을 수 있는 모종의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인도에서 2011년부터 18개월간 진행된 한 기본소득 파일럿에서 발견된 중요한 의미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노동자들의 강화된 협상력이 언급된 바 있다(Schjoedt, 2016). 자기 앞으로 들어오는 현금 수령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 실험에 참여한 인도의 여성들에게 삶에서 자기결정권을 경험하는 순간이었고, 실제로 가게 경제에 대한 결정권을 이전보다 더 갖게 됐다는 응답이 나왔다. “청소년이 자기 경제력을 갖게 되면 부모 말을 이전처럼 듣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항간의 걱정 뒤에는 이처럼 각자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소득이 불러올 관계의 역학 변화에 대한 직감이 담겨있다.

청소년인권의 관점에서 ‘빈곤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빈곤’의 의미는 단지 실제 소득 수준의 낮음에 국한되지 않는다. 어디라는 이유에 더해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을 때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적 지위에 내몰린 존재의 곤궁한 위치성에 주목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면상 자신의 ‘보호자’와 같

22) 아누슈 코르차. 『아누슈 코르차의 아이들』. 노영희 옮김(2002). 양철북. 35쪽.

23) 호야(2017), “존재를 위한 탈-가족.” 청소년 신문 요즘것들 제16호.

24) 치이즈(2017). “청소년은 빈곤하다”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제16호.

등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에겐 필요한 돈을 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위치에 있을 때 사람은 상대의 눈치를 보거나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본 연구 인터뷰 과정에서 확인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든 아니든, 탈가정했든 아니든, 직접 생계를 꾸리고 있든 아니든 청소년 ‘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소득을 얻기 위한 삶의 전략과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을 들을 수 있었다.

1) “부모님이 잘 사는 거지, 제가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 청소년이라는 보편적 약자성

“용돈 필요할 때 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너무 과하다 싶으면 안 줄 때도 있고 그래요. (인터뷰어: 그러면 기분이...?) 너무 짜증나요. 아쉽기도 하고.”

- 이채림

“물론 형편이 어려운 친구한테 먼저 주는 게 재원이 없다면 맞는데, 근데 사실 청소년은 솔직히 잘 산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이 잘 사는 거지, 제가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

가끔 구걸해요. **엄마한테 구걸해서 사기도 해요.** (인터뷰어: 아... 구걸해서... 그럴 때 기분이 좀 어때요?) 안 사줄 때 짜증이 좀 나는 거 빼고는... 그냥 그냥 살아요”

- 김다빈

“저는 좀 솔직하게 말해도 아빠가 주는 편이라서 거짓말은 딱히 안했구요. 옷 사고 싶으면, 아 이번에 성적이 올랐는데 시험도 끝났으니까 옷 사고 싶다고 돈 달라고 해서 받기도 하고 진짜 책 사야 될 때는 책 사야 된다고 돈 달라고 하기도 하고. (인터뷰어: 음. 뭔가 좀 친구들이나 남자친구랑 만날 때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남자친구 이야기는 안하고 영화 봐야 한다고 돈 받아쓰고 아니면 친구 생일 선물을 사야 된다고 돈 받기도 하고 친구랑 놀러간다고 그렇게만 말했죠. 남자친구라고 하면 돈 안 줄걸요.** (인터뷰어: 아 웬지. 네 맞아요. 그 용돈을 이제 어쨌든 건별로 말해서 돈을 받아야 할 때 마음이 좀 어땀어요?) **계속 달라하니깐 아빠가 짜증났겠죠.** (인터뷰어: 아빠도 짜증날 거 같고, 아빠가 짜증낼까봐 신경 쓰는 현주님이 있고?) 맞아요.”

- 임현주

김다빈이 간파한 바와 같이 “부모님이 잘 사는 것”이 곧 그 자식이 잘 사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용돈

의 필요에 대한 판단 기준이 보호자에게 있을 때 청소년은 어떻게 말해야 돈을 받기 수월할지를 체득해 나간다. 문제집 산다고 하거나 성적이 올라서 용돈을 받을 때 가장 '당당'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항상 그 기준을 충족할 순 없기에 자신에게 필요한 돈을 말했지만 거절당하는 일도 생긴다. 이채림은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수당으로 지급받은 총 10만원을 불링장과 만화방에서 썼는데, "처음엔 액수가 크게 느껴졌지만 막상 써보니 적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용돈이 더 필요해서 엄마한테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을 때의 기분을 "짜증"과 "아쉬움"으로 표현했다.

돈을 타서 쓰는 위치에 있는 존재는 돈을 얻기 위한 자신만의 전략을 만들어간다. 김다빈의 경우 "학교 다니니까 엄마한테 비밀로 하고 자택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알바를 하지만 그래도 쓸 돈이 부족할 때 "엄마한테 구걸을 한다"고 말했다. 임현주는 용돈을 받을 때 필요한 돈을 한 번에 받으면 "어떻게 한 달에 이만큼이나 쓰냐고 아빠한테 더 혼날 거 같아서" 건별로 그때그때 받는다고 했다.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주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의 기대에 부합하는 말과 행동을 고민하게 된다는 것, 즉 '거저' 받는 돈이 아니라고 고도의 감정도동을 동반하여 용돈을 받게 되는 과정의 '고단함'이 "구걸한다"는 표현에 집약되어 있다.

"저는 레슨을 일주일에 한 번 받거든요. 예고 다니는 애들은 두세 번씩 받거나 부모님이 차로 태워 다니면서 레슨 장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그렇게 못해 주니까 혼자 다 챙겨야 하고. 그런건 관찮은 거 같아요. 근데 약간... 악보가 종이 찢기인데 엄청 비싸거든요. 5만원은 그냥 넘어요. 그 종인데, **그거 사야한다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때 약간 쉽게 말 못하게 되는 거 같아요.** 악기 관련된 부품도 되게 비싼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드리기 그래서 친구들 거 빌려 쓰기도 하고. 아니면 선생님이 한번 해주시고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저도 만약에 등록금을 내면 어느 정도로 내가 알바를 해야 하고 부모님이 얼마를 내줄지 미래에 대한 생각이 저도 있어야 하잖아요. 집에 빚이 얼마나 있고 여유자금이 얼마나 있냐 물어보면 **니가 왜 그런 걸 알고 하나 그런거 있는 거 같아요.**"

- 노다예

"제가 지역아동센터에서 패션 쪽 일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디자인과'와 '패션과' 중에 패션과로 가려고 했는데 취업이 안 된다고 자꾸 여기저기서 압박을 해오니까 **그럼 취업을 하자 해서 여기 경영과 들어오게 됐어요.**"

- 임현주

아직 자신이 남의 돈을 받아서 쓰는 존재라는 자각은 진로를 고민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용돈을 “한 달에 한번씩 2만 원 정도 받고, 문제집을 사야한다거나 돈이 좀 더 드는 게 있으면 말씀 드려서 받는다”는 노다에는 악기(호른) 레슨을 받으면서 필요한 돈을 부모님에게 달라는 말을 쉽게 못하는 이야기를 했다. 부모님이 자기 등록금 정도는 모아놨다고 하지만 자신은 “등록금이 싼 시립대 음대”에 가거나 아예 일반 대학 사회복지 전공을 택하는 것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현주는 특성화고 전공을 택하는 과정에 취업에 대한 압박이 영향을 미쳤음을 말한다. 대학에 대한 로망도 있지만 “요즘 서울대생도 취업 못해서 난리라고 막 그러길래” 일단 취업부터 할 생각이라고 했다.

자신의 집안 형편을 고려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이들의 가정환경이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설령 이들이 엄청난 ‘부잣집’ 자식이었다고 해도 자신의 진로를 마음껏 고를 수 있었을까? 오히려 부모가 원하는 진로를 택했을 때에만 자식에 대한 지원이 유지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즉, 이들의 이야기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단지 안타까운 스토리가 아니라 “니가 왜 그런 걸 알려고 하나”는 말에서 드러나듯 부모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친권자’²⁵에게 종속되기 쉬운 위치에서 기인하는 보편적 약자성에 주목하여 살필 필요가 있다.

2) “제가 받아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미안함’

“어제도 돈을 빌렸는데, 필요해서 받았는데 그 외에도 돈이 필요해서 받은 경우에는 **죄송하기도 하고**, 또 세뱃돈 떨어진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들죠. (인터뷰어: 뭔가 자주 부탁하는 사람 입장이 되니까?) 네.”

- 윤소영

“(인터뷰어: 윤정 님은 용돈을 받아요?) 저는 받는 개념이 없어요. 옛날에 저희는 달라하면 엄마가 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그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통장에 용돈을 모아놨는데, 그걸 했다가 돈이 부족할 때면 엄마한테 돈을 받고 엄마 내 통장에 있는 돈 빼, 이려고, 빼서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인터뷰어: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고 할 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네, 뭔가... 쓰는 데 뭔가 계속 찢리

25) ‘부모’라는 표현은 혈연관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 정상 가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제·사회·법 모든 영역에서 자식이 친권자에게 의존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나타나는 친권자와 자식 사이의 권력관계를 드러내려는 취지에서 청소년 활동가들은 부모(보호자)를 3인칭으로 언급할 때 ‘친권자’란 표현을 쓴다(공현, 2010).

고 쓰기 불편해서... 부모님이 그냥 줄 테니까 써! 이러는데 내가 불편해~ 이려고. 통장에서 돈 빠가~ 이려고. 으흐흐."

- 이윤정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을 텐데, 용돈을 받을 때 미안하다 혹은 죄송하다고 말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눈에 띄었다. 그렇게 말한 청소년들의 용돈 지출은 교통비이거나 친구들과 편의점에서 사먹는 비용이었다. 보통 '받는 자'로서 '주는 자'에 대해 갖길 요구받는 감정은 고마움이지 미안함은 아니라고 했을 때, 그리고 오히려 용돈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고 했을 때 위의 인터뷰에서 확인된 청소년들의 미안함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집안의 경제 사정을 뻔히 알고 있을 때 자신이 돈을 타서 쓰는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겠지만 그 감정 더 깊은 바닥에는 '주는 자'의 기대에 자신이 부응해야 한다는 것을 자각했을 때의 부담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설령 상대가 나에게 명시적 메시지를 담은 부담을 준 적이 없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종속된 위치성은 '아이다움'이나 '학생다움'과 같이 이 사회에서 기대되는 역할과 규범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받게 될 '폭력의 예감'을 증폭시킨다.

돈을 주는 상대에 대한 '미안함'을 많이 느낄수록 눈치를 보고 위축되기 쉽다는 점에서 경제적 의존은 삶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용돈과 용처를 둘러대야 하는 용돈이 따로 있을 때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 가정 형편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조정하게 되는 것, '진로' 뿐 아니라 오늘의 시간을 어디에 쓸지도 부모의 기준에 맞춰야 하기에 가령 학원을 가지 않고 집회나 콘서트에 가는 것은 숨기게 된다는 것, 이때 대개의 부모가 원하는 청소년의 삶에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이라는 상상력이 부재한다.

"돈이 막 그렇다고 대단하거나 위대한 건 아니지만, 돈하고 맞바꾼 부모님의 노동이라든지.. 돈하고 맞바꾼 자체가 위대한 거잖아요. 부모님이 번 돈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받는 건데. 그렇게 받은 돈을 저희는.. 아무런 노동 없이 받은 데다가 가볍게 쓰게 되지 않나 돈이 많아지면... 스스로 절제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열심히 하고 있진 않지만 하고 있어도 그게 돈을 받을 만한 일일까 싶기도 하고, 왜냐면 부모님도... 누구나 사람은 공부하면서 자랐을 텐데. 나처럼 살았을 텐데 돈을 못 받은 사람도 있

있을 거고. 부모님 세대는 특히나 더 그랬을 텐데. 돈이 넉넉지 않았을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받아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 윤소영

보호자와 연결된 존재로서, 소득을 벌기 위한 보호자의 고단한 일상을 바라보는 청소년으로서 누구나 느낄 법한 ‘미안함’을 넘어선, 종속된 위치성에서 유발된 ‘죄송함’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묻게 만든다. 윤소영은 자신이 받는 용돈을 “아무런 노동 없이” 받는 돈, “대가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받는 돈이라고 말한다.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고 “KTX 해고 여승무원이랑 삼성서비스센터노동조합 분들”을 만난 경험을 얘기하던 이가 정작 자신의 ‘학습노동’은 돈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말한 셈이다.

인터뷰 과정에서 가령 핀란드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학업수당(study grant)²⁶을 받는 사례를 나누기도 했지만 윤수빈은 “공부를 해서 돈을 받아? 이런 생각을 하면 아직은 좀 생소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에 더하여 청소년의 미성숙함을 지적하는 대표적인 근거로 흔히 듣게 되는 말, “스스로 절제할 줄 모른다”는 말을 자신에게 붙이기도 했다. 청소년이란 존재를 바라보는 지배적 서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 서사를 내면화한 청소년 당사자 입에서 자신의 권리를 부정하는 논리가 나오게 된 장면이다. 경제적 자율성을 존중받지 못하고 가족부양체계가 만들어내는 ‘눈치 보는 삶’ 속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서사가 만들어진 것 아닐까.

3) “엄마에게 빌린 돈” - 소득을 확보하려는 청소년들의 노력과 어려움

“저는 어릴 때부터 경제적 지원을 거의 못 받았어요. 거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좀 웃기지만 dot자리 같은 걸 들고 밖에다가 좌판을 깔고 뭘 팔아가면서 그 돈 가지고 준비물을 사고. (웃음)

26) 핀란드의 경우 만 17세 미만까지는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17세를 넘긴 시점부터는 중등교육/고등교육을 이수하는 이들에게 학업 수당이 지급된다. 금액은 나이, 부모와 함께 사는지 여부, 부양 자녀 유무, 중등교육인지 고등교육인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가령 부모와 함께 살고 중등교육을 이수중인 17-19세는 월 38.66유로(약 5만원)를 지급받고, 혼자 살면서 중등교육을 이수중인 만 18세는 월 250.28유로(약 33만원)를 지급받는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KELA) 참고. <http://www.kela.fi/web/en/financial-aid-for-students-study-grant> (2017년 10월 20일 접속)

그때 마음은 뭐였나면 그냥 **엄마도 힘들 게 사는 게 느껴져서 내가 좀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는 느낌 이 강해졌어요.** 어릴 때.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가면서 조금씩 엄마랑 사이가 멀어지고 멀어지고 멀어지면서 **내 생계는 내가 책임져야지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엄마가 아시는 분들이 하는 가게에 가서 설거지를 도와서서 돈을 받는다던지. 그때 막 한 시간에 3000원씩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웃음) 아 딱 데 편의점 가면 부모동의서 들고 와라 하니까 전 부모동의서를 받으면 엄마가 분명히 반대할 게 분명하니까 안 되겠다 딱 데 찾고. **어릴 때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해오면서 엄마한테 도움을 받는 거는 익숙지가 않아요.**"

- 김지영

앞서 언급한, '자신에게 돈을 주는 존재에 대한 미안함'이 김지영의 이야기에는 "엄마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로 드러난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신이 직접 돈을 버는 경험을 시작했고, 엄마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김지영은 17살 때 집을 나온 뒤 월세 명목으로 엄마에게 돈을 몇 달 받았다. 그렇게 받은 160만원을 김지영은 "조금조금씩 뜯어가며 빌린 돈"이라고 표현했다. "그동안 돈을 받지 않던 아이가 도움을 요구하는 게 달갑진 않으셨던" 엄마는 처음엔 20만원씩 보내다가 나중에 30만원을 보냈다고 한다. 엄마에겐 "어차피 자식이랑 함께 살아도 식대와 이런 거"에 들었을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자식으로 서 받아도 되는 돈이란 생각이 들어서 슬프기도 하지만 결국 김지영은 그 '빌린 돈'을 최근에 다 갚았다고 했다.

"조건없는 공적 재정지원을 받은 청년"들을 인터뷰한 송하진, 우성희(2016)는 민간재단²⁷의 지원을 받은 이들과 지자체의 지원(성남시 청년배당)을 받은 이들이 보인 반응의 차이를 '증여'와 '재분배' 개념을 빌어 분석한 바 있다. '증여'의 경우 돈을 준 사람은 받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재분배'의 일환으로 돈을 받은 사람은 권리로서 받은 것이기에 준 사람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자신이 받은 돈에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상품권 형식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성남시 청년배당 수령자들과 달리 지원금에 '감사'를 표했지 다른 불만이나 개선에 대한 의견을 말하진 않은 민간재단 지원사업 참여자들의 반응 차이를 읽어내는 실마리가 된다. 기본소득의 정의 중 '정치공동체가 지

27) 삼성재단 '지역청년활동가 인턴십' 사업은 농촌의 청년활동가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 가량의 활동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중간 공유회, 최종 발표회를 통해 각 청년들의 삶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 과정이 순수한 공유의 차원에 머무르고 어떤 결과나 정해진 목표를 채우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청년들에게 받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증빙이나 결과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민간재단의 지원사업이 '증여'로서의 성격이 크지만 '재분배'의 효과를 낼 수 있었다고 해당 연구자들은 분석했다(송하진, 우성희, 앞의 글).

급한다'가 청소년들에게 더 특별한 의미를 낳는 부분은 청소년들이 친권자에게 받은 돈에 대한 미안한 감정의 짐을 덜 수 있다는 것, 즉 소득이 '권리'로 보장받을 때 친권자에 대한 감정노동을 더는 대신 서로 좀 더 동등한 인간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일 것이다.

“처음에 제일 맨 처음에 친구랑 그 뭐지 호텔? 웨딩 쪽 그 밥 이렇게 나르는 그걸 했었어요. 그건 단기일바라서 하고 싶을 때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한번 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다리가. 진짜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근데 여기는 밥도 잘 줘요. 밥도 못 먹고 쉬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가고 사람들 옆에 가서 뭐 필요하냐고 물어봐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한번 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돈을 벌었으면 좋겠으니까 웃도 사고 싶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이제 아예 딱 그 안정적인 알바를 구했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 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잘 구했다고 생각하고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 임현주

“너는 자퇴했으니까 뭐 술 담배 할테고 질이 안 좋을 테니까 일도 제대로 못할 거고 머리로 모자랄 거고 이런 얘기가 좀 자주 나오니까. **일을 구하기도 어렵고 구해도 거기서 무시를 하는 발언이 많아서.**”

- 조민정

“(알바를) 가끔은 해요, **엄마한테 비밀로 하고. 근데 또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자택에서 할 수 있는 걸로 만 주로 해서 버는데,** 요즘엔 또 많이 없더라구요. 저는 약간 예쁜 거 좋아해서 악세사리 같은 거 많이 사는 편이고, 친구들이랑 영화보거나 미술관 가거나 그런 걸 좀 많이 해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진짜 많이 나가는 건, 앨범이나 그런 쪽이고.”

- 김다빈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남자 청소년들은 훨씬 일자리가 안정되기도 하고 소득수준도 되게 높은 거 같고. 근데 여자 청소년들이 일을 하는 일자리라는 거는 약간 묘하게 서비스직이랑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런 데서 이렇게 성적인 어떤 성폭력이나 성추행 성희롱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남자 청소년들은 그 안에서 자기가 돈을 더 받으려고 애를 쓰다가 약간 걸려가지고 쫓겨나는 경우들이 있지만 여자 청소년들은 약간 성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희롱당하고 막 추행당하면서 그런 거에 불만을 제기하지도 못한 채로 임금도 다 못 받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과는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약간 과정상에서 그런 차이들이 훨씬 더 많

은 거 같아요. 남성 청소년들은 남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피해 이런 거 거의 없는데 여성은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피해들이 너무 많죠.”

- 변미혜(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활동가)

부모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서든, 친권자에게 ‘구걸’하는 위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에서든 경제력을 확보하려는 청소년의 노력들이 있다. 앞서 김지영이 보호자의 부양이나 사회복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꾸리고자 고군분투하는 것, 김다빈처럼 부모의 기준에 비추어보면 ‘낭비’ 혹은 ‘꼭 필요하지 않은 소비’로 취급되는 문화생활을 위해 몰래 재택 알바를 시도하는 것은 일종의 생활의 자주권을 갖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적 노력은 청소년의 필요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없는 조건 속에 여러 장벽에 맞닥뜨린다. 그리고 이 장벽은 변미혜가 “남성 청소년은 그냥 힘들까봐 걱정하지만 여성 청소년은 당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한 것처럼 젠더의 차이를 따라 더 강력하게 작동하기도 한다. 청소년은 공부만 하면 된다고 간주되는 사회에서 알바를 하는 청소년은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거나 구해서는 “부러먹기 쉬운 존재”(이수정 외, 2015) 취급을 받는 이중의 억압을 경험한다.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일정 소득을 확보해보려는 청소년의 시도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사회적 조건 속에 경제적 주체로서 청소년의 자리 또한 비가시화되고 만다.

2. 청소년은 기존 사회복지체계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복지 수혜자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정말로 가난하고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때조차도 '이유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존중을 받지 못한다.”²⁸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인권은 단지 생존만이 아닌 사회적 존재로서의 존엄과 그것이 실현되는 방식에 주목한다. 이때 기존 복지체계에서 사람들이 ‘존중’이 아닌 ‘별거벗겨진 듯 느끼는 적대적 심판’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기본소득의 지향으로 이어진다.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권리의 근거는 “나의 곤궁함이 아니라 나 자신”(헤니 외, 2015)이다. 즉 우리에게겐 “가난을 증명하지 않을 권리”(밀롱도,

28) 리차드 세넷(2004). 『불평등 사회의 인간 존중』. 유강은 옮김(2004). 문예출판사. 221쪽.

2014)가 있다. 선별이 아닌 보편성이라는 원칙과 더불어 기본소득은 가구 구성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지 않고 개인 단위로 지급된다는 원칙(이진민, 2017a)을 갖는다. 이 장에서는 기존 사회복지체계에 쏟아지는 비판이 청소년의 경험 속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님을, 가구 단위 지원의 한계, 선별의 문제, 서비스 중심 지원 체계 그리고 이 속에서 ‘위기청소년’은 어떻게 더 밀려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1) “할머니가 받는 돈이 떨어질까봐” - 가구 단위 지원의 한계

“내가 만약에 수급을 받아 그러면 내가 분리가 돼서 할머니가 받는 돈이 떨어질까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내가 만약에 수급을 받으면 도움을 줘야 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냥 차라리 할머니 다 주고 나는 또 일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겠다고 생각했었지. 근데 힘들더라고. 엄청 힘들더라고.

선옥샘이랑 동사무소에 같이 갔었는데, 왜 분리를 해야 되냐고 자세히 말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뭐라고 했지. 근데 그 사람이 ‘성폭력 당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선옥샘이 ‘다은아 그냥 저 뒤에 가 있으렴’ 해서 나는 저 뒤에 가있고 선옥샘이 그냥 말 하시고...”

- 이다은

“수급지원 받는데 거리에 나와 있는 친구들이 생활하는 거 보면 아니 부모들이 수급 다 타가지고 막 흥청망청 살지는 않지만 아무튼 자식들이 밖에 나가 있는 거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돈은 또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체로 집에서 나오는 친구들이 뭐 가족 내에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거의 막 도망치다시피 나오는 친구들은 집에서 독립해서 따로 (수급권) 받는 게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돈만 있으면 그냥 현금지급을 본인한테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 변미혜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활동가)

15살 때 집에서 나온 이다은은 원가족으로부터 수급권을 분리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은 이유로 “할머니가 받는 돈”이 줄어들 것 같아서였다고 말한다. 수급권을 분리해서 줄어들 할머니의 소득을 자신이 일해서 번 돈으로 다시 메워주기보다 그냥 서류상 원가족에 묶여있으면서 자기 생계를 스스로 꾸리기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자신도 힘들었고, 결국은 수급권을 분리하여 독립하기로 선택했지만 그 과정에서 느꼈던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을 이야기했다. 가구 단위 지원을 골자로 하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청소년은 생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자신의 부양자를

경유하여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다은의 경우 고민 끝에 수급권을 분리하고자 했지만 이 과정 또한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다은이 동사무소에서 만났다는 공무원은 수급권을 “왜 분리를 해야 되냐고” 물었다. 공무원의 이어지는 질문 속에 동사무소에 같이 갔던 선생님이 이야기를 대신 해줬고 이다은은 그렇게 자신의 편이 되어준 선생님에게 고마웠던 기억을 이야기했다. 이 과정을 함께 경험했던 실무자 김선옥은 수급권 독립 여부를 결정하는 공무원을 납득시켜야 하는 상황의 부당함을 인터뷰 과정에서 지적했다. 국가는 가정폭력이나 학대가 있었다는 증빙을 요구하지만, 이는 지원여부 결정하는 재량이 국가에 있을 때 자신의 ‘불행’을 ‘충분히’ 입증해야한다는 문제와 더불어 설령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청소년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원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기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 거는 나라에서 돈이 나와서 그걸로 그쪽 시설장님이 한 달에 만원씩 주셔서 그걸로 더 필요할 때 얘기하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시설에 살고 있으니까 수당 같은 거, 나라에서 받는 그런 수당. 한 개인당 30만원, 40만원 정도. (그 돈이 00님이 다 쓰신 걸로 기억을 해요? 직접 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통장으로 한달에 한번씩 돈을 넣어 주시고 그쪽에서 필요할 때 제가 달라고 하면 만원씩 주시고. (30만원을 다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다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놓았어요. 다른 시설에 들어가도 그렇게 똑같이 했는데 중학교 때는 거기에서 생활비 식으로 돈이 드니까 그 돈을 쓰는. (통장을 확인해 본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제가 그 돈이 들어오는지 몰랐어요. 알려주지도 않았고 중학교 2학년 딱 되니까 선생님들이 다 딱 통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들어왔나 하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니가 시설에 있었지 않나 하면서 그렇게 알게 되었어요.”

– 김진섭

가구 단위의 지원체계는 ‘시설 입소 중심’ 탈가정청소년 지원 정책에도 고스란히 이어진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 복지에는 시설 운영 지원 중심이 되고, 1인가구로 세대가 분리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독자적 주체로 인정받지 못해 시설이 통장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청소년을 한 명의 독립적 주체로 전제한 개별지원이 상상되기 어려운 현실 속에 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은 자신에 대한 지원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 수 없는 조건에 놓이기도 한다. 김진섭의 이야기에는 스스로 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미성숙한 존재라는 통념이 청소년의 경제적 자기결정권 행사 기회를 차단하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작동하는 문제가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이후로 부모와 떨어져 시설에서 거주해온 김진섭은 자기 명의의

통장에 수급비가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 거주했던 시설에서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인 자신의 수급비 통장을 관리해왔고, 김진섭은 자기 통장에 들어있는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지 못했다. 중학교 2학년 때 시설을 옮긴 뒤에야 자기 앞으로 나오는 장애수당과 수급비 액수에 관한 정보를 처음 알게 된 과정을 김진섭은 이렇게 말했다. “당사자가 난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말해주지도 않고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알려주고 얼마 빠져나가고 그런 걸 알려줘야 그 사람도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2) “그렇게만 살고 있지는 않은데” - 선별 과정이 낳는 경험들

“수급 지원 받으면 사람을 막 밑바닥으로 내려치는 거 같아. 진짜 내가 진짜 할머니가 애처롭다고 생각한 게 중학교 때인가 수급 신청하려고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 근데 할머니가 날 부르는 거야 놓고 있는데. 그래서 갔지. 할머니가 상담 들어가기 전에 막 이걸 말하지 말고 이걸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난 그게 좀 싫었던 거야. 뭐 **아빠가 지금 알콜 이렇게 빠져서 일을 못하는 것도 맞고 할머니가 나이가 있으니까 일을 못하는 것도 맞는데 그렇게만 살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돈을 받을 수 있어서 할머니가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난 그렇게 말하기가 싫었던 거 같아.** 근데 그렇게 말했어. 근데 한마디 잘못해서 안됐어.”

- 이다은

당장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선별’을 통과하는 과정은 실제 자신의 삶과 설명된 삶 사이의 간극을 직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다은은 중학생 때 수급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할머니에게 ‘코치’를 받았던 때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해야” 했던 순간으로 기억한다. 여기서 ‘그렇게 산다’의 의미는 지원을 결정하는 심사 담당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뜻한다.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 것만은 아닌데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돈을 안주니까” 과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다은의 말 한마디 실수로 심사에 떨어졌는데, 그 실수란 다름 아닌 “할아버지랑 살아요”라는, 서류상 잡혀 있지 않았던 사실을 말한 것이었다. 그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남자친구’였으나, 국가는 ‘남자친구’의 소득을 이유로 이다은이 속한 가구의 수급자격을 박탈했다.

“대부분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를 많이 만들어놓고 그런

식이 한 부모인데 그런 한부모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야 되니까 소득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물론 문제가 있었으니까 처음 발단은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나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조금이라도 가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하는 친구들이 많지.**"

- 김영원(지역아동센터 교사)

"내가 일을 하고 있어도 되게 조금 받고 있는데, **그거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이견 뭐 수급을 받으나 마나, 일을 하나 마나지.** 그래서 걱정하는 게 너무 싫어서 수급 포기하고 마음 편히 월급 받는 걸 선택했지. 그러니까 나는 돈을 막 이렇게 좀 열심히 벌고 내가 일을 한 만큼 받고 싶은데, 그 수급 받는 거 때문에 내가 얼마 이하는 받지 못하고 그런 게 막 귀찮기도 하고 좀 그때 수급 거기에서는 얼마 이상 받지 말라고 정해놓은 거잖아. 근데 내가 그 이상 받는 게 양심에 좀 찢리기도 했고."

- 이다은

"기존에 가출 청소년 쉼터라고 하는 탈가정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곳들의 상당수가, 우리나라 복지재단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종교 법인에서 하는 복지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게 되면 또 다른 2차 피해를 당할 우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어떻게 탈가정 했는지 이유를 말해야 하는데, 단순 변심이라고 이야기 하면 지원을 받기가 어렵죠. 지원을 요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후 순위로 밀리게 되고**"

- 루카

선별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과장' 혹은 숨겨야 하는 예는 삶의 다양함만큼 많을 것이다. 한편에는 지역 아동센터 교사 김영원의 언급처럼 자신의 가난을 증명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족을 해체'하는 이들이 있다. 국가가 정한 빈곤선 아래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 이다은의 경우처럼 자신이 일을 했다가 수급비가 깎일까봐 '걱정'하거나 '양심에 찢려'하는 이들도 생긴다. 수급을 받으나 일해서 직접 버나 자신이 갖게 되는 소득이 비슷할 때 누군가는 힘들게 일하는 대신 '무능하다'는 낙인의 대가로 받는 수급비를 선택한다. 지원의 필요성을 선별하는 시스템에서 기인한 선택들이지만, 국가는 그 선택의 맥락들을 보기도 못하는 '부정수급자 색출'이란 이름으로 이중의 모욕을 가하기도 한다.

선별이 낳는 문제의 다른 한편에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힘들 때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이 집에서 쫓겨난 이유를 선뜻 말할 수 있을까. 당사자 정체성으로 현재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루카는 탈가정의 이

유를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없기에 ‘단순 변심’이란 이유로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막상 자신의 성격 체성을 밝히면 “2차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문제를 지적했다. 이쯤 되면 과연 사회복지가 진정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기초생활수급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계속 받았었는데. 학교에서 교육비 무상 신청해, 우유급식 무상으로 신청해 가정통신문 주시는데. 애들한테 다 나눠주시는데 애들은 어 이거 뭐야 하고 버리는데 저는 이걸 챙겨야 하니까. 엄마한테 이거 공짜래 보여드려야 되니까 챙기게 되고. **원가 센터를 다니는 거를 친구들한테 쉽게 얘기를...** 지금은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사춘기 때는 얘기를 못했어요. 학원간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디 학원 다녀? 물으면 전 말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받는다 하면 인식이 달라지잖아요, 정부에서 돈을 받는다 하면. 못 살구나 이런. 그니까 숨기고 일 안할 것 같아요(웃음).** 그럼 걸로 보기에 엄청 잘 사는 거 같은. 그럴 거 같아요”

- 노다예

“근데 확실히 (지원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워요. 조건이 맞아야 되고. 신청도 저희가 직접 해야 되고,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분들이 와서 집 상태 보고 그런 거 다 보고 체크해보고 하니까. (인터뷰어: 서류 같은 거 낼 때, 담당 공무원이 와서 확인하는 작업이 있나 봐요?) 네, 있긴 있어요. (인터뷰어: 그럴 때...?) 그냥... 쏘쏘(so so)? 모르겠어요. 좋긴 좋은데, **받는 입장이니까. 돈이나 뭐 물건이나 받는 입장에서선 좋은 건데, 생각으로 따지면 약간 좀... 받는 입장에서 그건 좀, 좀... (웃음) 받는 입장이니까 일단 미안하진 않은데, 또 약간 불쌍하게 본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 살짝 약간...**”

- 박희상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돈을 주는 입장이니까. 그런 거 싫어요.”

- 임현주

류은숙(2008)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인권수준이 드러난다”고 하면서 “되는 사람은 임금을 통해 해결하고 노동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잔여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나, 사회적 연대의 정신에서 필수적인 것을 같이 해결하느냐는 그 철학과 접근 방식이 아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인 바 있다. 보편복지나 선별복지나 논쟁에서 한정된 국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닌 빈곤 계층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하지만 '수급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선별'은 존엄의 훼손을 필연적으로 낳는다.

한편에선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현실에서 가난은 “불쌍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체득한 이들은 “가난을 ‘화장’”(안수찬, 2011)하기도 한다. 지역아동센터를 학원이라고 불렀다는 노다에는 국가로부터 돈을 받게 된다면 자신이 “사회복지 대상자”라는 것을 숨기고 일을 하지 않고 엄청 잘 사는 것처럼 행동하겠다고 했다. 이 사회에서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잘 알기에 나온 반응이다. 그런 존재를 두고 세상은 “도덕적 해이”라는 손쉽게도 부당한 딱지를 붙이고, ‘받는 자’는 가난하지만 불쌍하고 싶진 않은 분열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닐까.

3) “딱 인형인 거지 인형” - 서비스 중심 지원의 한계

“애한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있거든. 그런 가정의 청소년들한테는 1차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집에 경제적인 상황을 떠나서 그런 집에서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거든. 그 돈 주면 피씨방 간다 딱 이거거든. **이거 주면 너 뭘 할 거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딱 인형인 거지 인형. 욕구를 가지면 안 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욕구를 사실 발산하기도 적절하지 않은 것도 많아. 사회복지가 배울 때는 클라이언트를 어찌구 저찌구 하지만 실제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반영하는 곳이 많지 않고 현실적으로 어려워. 다양한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 시기에 맞는, 욕구라기보다 필요가 있다고 이미 상정하고서 과정을 설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 경우는 공부, 다 공부야. 학습 말고는 지원하는 경우가 없고,** 지원하는 경우도 다 학습지. 재단 같은 데서도 청소년들 문제집 필요한 거 있으면 자기네가 지원하겠다 이런 식이야. 그런 욕구가 없는 청소년들도 되게 많거든”

- 김영원(지역아동센터 교사)

“PC방, 노래방 들 다 문화생활 할 수 있는데, 그게 빠진 거가 좀 이상해요. 근데 어른들 시선이, 사람들이 시선이 좀 불결하다고 해야 하나? 조금은 그런 데라서 뻥 게 아닌가... 근데 거기도 다 문화생활이고, 즐겨 하는 사람들은 즐겨하는데 아쉽죠 빠진 게.”

- 이윤정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영원은 사회복지 이론에 등장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반영’한다는 말이 청소년이란 집단을 만났을 때 ‘학습지원’으로 귀결되는 문제를 지적한다.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 즉 ‘학업’에 부합할 때만 작동하는 지원이라는 것이다. 청소년 시기는 공부를 해야한다는 통념의 이면에는 ‘애들은 돈 주면 피씨방 간다’는 또 다른 통념이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한다.

서울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수당’을 수령하여 사용해본 경험을 들려준 이윤정은 “볼링장은 갈 수 있지만 노래방은 갈 수 없었던 경험”을 말했다. 청소년의 ‘문화, 예술,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정책의 맥락에서 참고서가 아닌 다른 책을 사도록 유도한 것은 그동안 ‘청소년=학업진로’로 생각해온 방식을 벗어난 진일보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문화, 예술, 진로체험의 기회’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는 여전히 ‘주는 자’의 기준에 달려있는, 용처가 지정된 현금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욕구가 온전히 존중, 반영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를 둘러싼 흔한 통념 중 “가난한 자들은 받은 돈으로 술을 먹을 것이다”는 전제는 “빈민들은 합리적 판단, 소비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Standing(2014)은 사회 정책을 평가하는 준거로 ‘온정적 간섭주의 감별 원칙 The Paternalism Test Principle’을 제시한 바 있다. ‘가장 자유로운’ 그룹에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일부 그룹에만 간섭이나 지시가 있는 정책은 부당하다는 것인데, 이 원칙은 현금지원정책의 ‘조건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즉, 빈민들은 소비에 관한 합리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제 그리고 빈민들에게 뭐가 부족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는 정책입안자들이 잘 안다는 전제 하에 특정 용도로만 쓸 수 있는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받는 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자녀에게 갈 돈을 빼앗아 술 사먹을지 모르는 부모 그리고 현금을 주면 ‘다른 데’ 쓸 것이란 빈곤과 청소년에 대한 이중의 지배적 서사 속에 청소년 지원 정책은 서비스 중심이거나 현금 지급이라도 조건이 달라지게 된다.

청소년들이 어디를 갔는데 누가 뭘 사 먹어 돈이 없는 친구들도 있잖아 집에서 돈을 안 줘서 그럼 못 사 먹는 거야. 사실 우리가 보면 누군 사 먹고 누군 못 사 먹고 있으면 마음이 그렇잖아. 돈 없는 사람들만 썩 빼서 사주기도 그런 거야. 사 먹지 말자가 되는 거야 아니면 다 같이 사 주거나. **그런 욕구들이 대개 크고 꿈과 관련해서 좌절되는 욕구보다는 일상에서 소소하게 나에게 떠오르는 그런 순간 순간 욕구들을 해소하기엔 자원이 없는 거지.** 가다가 어디를 학생들이랑 가는데 물을 먹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런 요청을 항상 교사한테 “나 목말라”라고 요청 자체도 교사한테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스스로가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 있잖아.** 사람이 욕구가 있으면 그게 꼭 돈만 수단은 아니겠지만 우리 사회가 돈을 매개

로 해서 욕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해보지 못한 친구들은 복지 서비스 관계에서도 말을 잘 못하는 거야. 이게 그냥 익숙한 게 교사한테도 계속 얘기해. 식당을 가도 뭘 주문을 한다 해도 교사한테 얘길 하고 심지어 숟가락이 떨어졌는데도 나를 보고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약간 애들이 왜 이렇게...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대개 잘 참아 짜증나게.

그게 욕구가 계속 해소되지 못한 과정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청소년들이라서 특수한 상황들이 그렇게 만드는 건지 어디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없잖아. 학교도 다 참아야 한다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 뭐 다 참아야 된다고 하니까 청소년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을 견뎌야 되거나 하는 거지 그 상황을 뭔가 다른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낯선 공간은 특히 더 그렇고.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욕구가 좌절된다는 거, 이런 거는 이후에도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참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

- 김영원(지역아동센터 교사)

“욕구를 가지면 안 되는 인형”으로서의 삶을 강요받는 동시에 ‘받는 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욕구를 참기를 요구받는 경험이 누적됐을 때 청소년의 삶에는 어떤 자국들이 남아있을까. 김영원은 욕구를 참거나 생기더라도 좌절된 경험이 반복될 때 “그 상황을 뭔가 다른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욕구를 주체적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막혀 있을 때 인간은 차라리 아무 것도 욕구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참는 데 익숙해지면 자신이 참고 있다는 감각 자체가 무뎠어지는 데에 이른다. 무뎠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자율성이 침해받을 때 순간들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무기력한 사람은 없다.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조건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현실에선 특정 순간 발현되는 무기력한 모습을 근거로 “미숙한 청소년”이란 통념이 강화되고 그 통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서비스 체계 속에서 청소년의 주체성은 더 존중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결국 청소년의 실제 욕구와 필요는 미끄러지고 있다.

4) “적어도 성매매는 아니지 않을까” - ‘위기청소년’에게 더 절실히는 소득

“이 친구에게 만약에 수당이 제공된다면 이 친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적어도 성매매는 아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걸 떠올리는 거죠. 대부분 초기 상담 해보면 ‘어떻게 해서 처음에 성매매 유입됐니’ 라는 대화를 나눠보면 그냥 진짜 간단한 거죠. 집을 나왔고 잘 데가 없고 놀이터나 친구집이나 다 전전하다가 이제 돈이 없고 이

런 어플 채팅에 올려서 ‘잘 곳 구해요’. 거의 그게 시작점이에요.”

- 신선웅(늘푸른자립학교 실무교사)

“한동안 (엑시트) 버스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 성매매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 그들이 그냥 돈을 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성매매하고 와서 친구들이랑 그 돈을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서 (성매매를) 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막 **어떤 친구랑은 야 얼마 있으면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하루에 만원? 뭐 이렇게만 있어도 자기 일상은 살 수 있다고.** 근데 고거를 구하기가 힘들니까 성매매해서 돈을 (벌더라고요). 누구는 그게 많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그 돈을 가져와서 자기가 인생을 계획하거나 일상이 달라지는 방향은 아니게 돈을 쓰는데 그냥 교통비랑 담뱃값만 있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처음에 어차피 심터에 들어가서 국가에서 그들에게 쓰는 비용이 있다면 아주 일부라도 아이들이 직접 쓸 수 있으면 지금 이렇게 이르지 않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이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 변미혜(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활동가)

“나 지금 투잡 뭘까 생각중이야.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지금 상희(동거인)가 들어와서 살고 있잖아. 근데 상희 30 경희(동거인) 30 나 30 해서 살고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모으는 돈은 있지만 **집을 위해서 따로 모으는 돈은 없잖아.** 그래서 경희랑 나랑은 계속 같이 살 계획이니까 5만원씩 더 내려고 하고 있거든. 35만원 35만원 상희 30만원. 음 그래서 막 하다보면 **저금도 하지 월세도 내지 생활비도 내지 교통비도 내고 담배도 사고 하면은 돈이 없어. 부족해.**”

- 이다은

경제적으로 종속되기 쉬운 위치에서 기인하는 ‘청소년’이란 집단의 보편적 약자성에 ‘위기청소년’이라는 삶의 조건이 더해졌을 때 소득의 부재는 ‘위기’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주로 탈가정, 탈학교한 10대 여성”을 만나는 교사 신선웅은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 배경으로 당장 잘 곳을 구할 돈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거리청소년 아웃리치 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의 경험을 나눠준 변미혜 역시 “하루에 만원”만 있어도 살 수 있는데 그 만원이 없어서 성매매를 하는 존재들을 보며 실무자로서 무기력해졌던 순간을 이야기했다. 소득의 부재가 미치는 파장이 ‘위기청소년’에게 더 크게 작동한다면, 같은 이유에서 반대로 약간의 소득이라도 보장될 때 그것이 ‘위기청소년’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 또한 더 크다고 말

할 수 있다. 인턴십센터와 알바를 다니며 열심히 돈을 벌지만 일상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빼고 나면 정작 자신의 미래(“집”)를 위해 모으는 돈은 없다고 생각하는 이다은의 삶에 조건 없이 지급되는 현금의 의미는 부모의 부양 아래 있는 청소년이 느끼는 것과는 또 다를 것이다.

누군가는 가출한 청소년들의 ‘잘 곳’으로 쉼터가 있지 않느냐고 물을지 모른다. 그러나 막상 거리에 나온 청소년 중에는 쉼터에 들어가는 것을 썩 달가워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쉼터에 들어가면 용돈이나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 통제가 있고 자기 일상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답답함을 호소한 이가 많았다. 음악 관련 전공을 생각하고 있는 조민정은 알바를 하지 않는 시간이면서 대관 비용이 싼 새벽에 연습실을 가고자 하지만 ‘통금’시간 때문에 결국 쉼터를 나오기로 결정했던 경험을 들려주었다. 쉼터에서 학원비 지원을 받는 대가로 ‘통금’이란 제약을 받는 대신 스스로 별면서 음악 연습을 더 하겠다는 것이었다.

“막 쉼터가 문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좀 쉼터가 잘 맞는 친구들도 있고 그 안에서 잘 자립해서 사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한 개인도 어떨 땐 그룹홈이 되게 잘 맞았다가, 어떨 땐 거리에서 친구들이랑 살 때가 잘 맞았다가 이게 되게 약간 개인 안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뭐 하나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거 같아요. 청소년들도 다양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친구들은 또 쉼터가 되게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문제는) 가출한 청소년들 대안을 쉼터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까 더 그렇게 쉼터 중심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방식밖에 생기지 않는 거 아닌가. (현금 급여 방식과 별개로) 주거는 주거대로 풀기도 해야 되지만, 지금 가출 대책으로 주거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쉼터 입소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거리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그ir들의 삶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약간 현금지원이 그게 뭐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양한 방식의 지원들이 좀 같이 좀 일어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 거 같아요.”

- 변미혜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활동가)

“청소년 지원체제로 들어왔을 때는 청소년들이 또 호소하는 건 **본인들이 원하는 욕구들이 서비스 체계 안에서는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이게 또 일을 하려면 여기 가야하고, 쉼터 살려면 여길 가야하고, 학습을 하려면 여길 가야하고 이게 다 쪼개져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 사실 저희도 학교(늘푸른자립학교를 말함-인용자 주)에서도 그런 거 때문에 인턴십 센터하고 합친 게, **학교에 학력취득을**

위해서 오면 생활비,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인턴십 센터에 보내면 학력취득을 해야 하는 나이가 이제 막 차는 거죠.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되어버리니까. 이 합의점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 상황.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건 불가능하고 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쉼터에 있어도 프로그램 많은 쉼터 같은 경우는 학교에 보내는 걸 원하지 않으시기도 하시고. 오히려 이런 **이렇게 널려있는 서비스 안에서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고 그걸 하려면 또 뭔가 자기 걸 포기해야 하고**, 그거에 대한 (청소년들의) 호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널려있고 오히려 사회복지 체계가 사각지대에 몰려있는 느낌.**"

- 신선웅(늘푸른자립학교 실무교사)

규칙 때문에 쉼터를 힘들어하는 이도 있지만 “잘 맞는 사람”도 있다고 할 때, 변미혜가 중요하게 지적한 것은 “쉼터에 입소를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다.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탈가정 청소년은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막상 쉼터에 들어갔을 땐 쉼터 프로그램이 다른 기회를 차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 지원 체계가 청소년 개별의 삶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신선웅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이 아니라 “사회복지체계가 사각지대에 몰려있는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본인들이 원하는 욕구들이 서비스 체계 안에서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이걸 하려면 여길 가야하는 식으로 쪼개져 있고 자꾸 지원의 조건이 붙으니 결국 제한적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경제적 약자로서 청소년 모두가 겪는 ‘빈곤’한 위치성과 그것이 낳는 효과들, 기존 사회복지체계에서 청소년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모두에게 조건 없는 현금 직접 지급’이 청소년의 삶과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보이는 지점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보자.

Ⅲ. 기본소득과 청소년의 만남

1. 청소년의 삶에서 조건 없는 현금이 갖는 의미

이건민은 응분의 원리, 필요의 원리, 시민권의 원리라는 키워드로 기본소득을 설명한 바 있다²⁹. 고용된 상태에서 자신이 납부한 기여금을 바탕으로 나중에 돌려받는 사회보험이 응분의 원리(principle of desert)에 입각하고 있다면, 스스로 유급노동을 수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위험에 봉착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부조 급여는 필요의 원리(principle of need)에 의거한 것이다. 이 때 ‘응분의 원리’와 ‘필요의 원리’는 둘 다 ‘유급노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시민권의 원리’로서 기본소득은 기존의 ‘응분(기여)의 원리’, 즉 권리 부여 이전에 의무 이행을 우선 요구하는 논리를 넘어선다(이건민, 2017b). 인간의 삶에 임금노동 이외에도 유의미한 ‘일’의 종류는 많다는 것, 자본주의 생산원리에 들어맞는 ‘기여’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혹은 못하는) 존재도 ‘사회적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은 청소년이란 존재가 공부를 잘 하든 못 하든, 집이 가난하든 아니든 미래를 이끌어갈 인적 자원으로서가 아니라 지금의 존재 그 자체로 경제적 자율성 그리고 독자적 시민으로서의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논의를 열어준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지향에 비추어 ‘조건 없는 현금 지급’이 청소년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인터뷰에서 길어진 내용들을 살펴보려한다.

1) “나도 내 조건을 걸 수 있지 않았을까?” -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들

“난 항상 다 맞춰줄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했었거든. 내가 무리를 해서까지. 힘들어도. 근데 (다른 소득이 좀 있었다면) 약간 나도 내 조건을 걸었을 거 같아. 저는 이때 이때 가능하고요. 저는 이렇게 일 하고 싶고요. 얼마 벌고 싶어요라고 말할 수 있을 거 같아. 근데 그때는 무조건 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 조금 여유 생겼다고 오늘 면접 보러 가는 곳은 오후근무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오라 그레가지고. 돈이 급하니까 무조건 다 할게요 그랬던 거 같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편하게 써. 내가 급한 걸 아니까. 내가 봐도 그때 나는 되게 조금했거든. 다 맞춰줄 수 있다고. 수지 너 돈 많이 벌고 싶지? 그럼 더 일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힘들었지. 돈이 좀만 있었더라면 나도 내 조건을 걸 수 있지 않았을까. 저 이날은 꼭 쉬어야

29) 이건민 초청간담회(2017.06.07) 발제문.

하고요 라거나.”

- 김수지

중학교 2학년 때 집을 나온 뒤 그동안 알바 “20-30가지를 해본 것 같다”고 말한 김수지는 돈이 좀만 있었더라면 자신도 일 하며 조건을 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 맞춰줄 수 있다고 말한 자신을 편하게 부리는 일터에서 “이날은 꼭 쉬어야 하고요” 말할 수 있는 협상력이 생겼을 것 같다고 말이다. 고용주에 맞서는 협상력(bargaining power)으로서 기본소득이 갖는 의미는 인도 기본소득 실험 연구 결과에 언급된 바 있다(Schjoedt, 앞의 글: 5쪽). 일자리가 없거나 있어도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 빈민층 대부분이 부채의 덫에 빠져 있는데 이때 대출을 받는 가장 흔한 상대가 자신의 고용주이고 결국 그 빚을 갚기 위해 무한 노동의 수렁에 빠지는 인도 사회의 맥락이 나온다. 한 예로 다섯 살 먹은 딸이 공장에서 일하다 죽자 그 부모는 고용주를 고소하고자 했으나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구슬림에 고소를 취하였고, 결국 나중에 말을 뒤집고 책임 지지 않는 그 사장 밑에서 여전히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조건 없는 현금 지급 실험의 결과로 부족 마을(tribal village) 주민들의 부채 상황(상환 비율 73%, 신규 부채 0%)이 통계 집단의 결과(부채 감소한 비율 18%, 증가한 비율 50%)에 비해 현저히 개선된 점을 근거로 사업장에서 고용주에 맞선 노동자들의 협상력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이 열악한 일자리를 피하는 데 기본소득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당 연구는 분석했다.

“청소년 성소수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성별 표현이 남성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여성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상이 되거나 굉장히 폭력의 피해대상이 될 경우도 많아서.. 스스로 정체성에 맞는 성별 표현을 할 수 있는, 저는 사실 그것도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트랜지션까지는 모를지언정 **최소한 내가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 이라면 내가 화장을 하거나, 치마를 입거나, 아니면 그 밖의 다른 유형의 성별 표현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 있어야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

- 루카

“그리고 빈곤 청소년일수록 외모에 더 민감해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으니까. 공부 좀 하고 여유 있는 애 들은 오히려 시크하게, 뭐 어때? 이런 건데 (빈곤 가정) 여자 청소년들은 돈도 안 되잖아요.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거 없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걸로 노력할 수 있는 거는 화장하고 외모 가꾸는 일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인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거는 조건에 너무 영향을 받지만, **화장은 누구나 기술, 자기가 하다면 하면 훨씬 잘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리고 **남자애들은 운동을 잘하면 또래 관계에서 자존감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건 돈이 안 드는 일이에요. 몸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 윤혜경(전 찾아가는동주민센터 마을 업무 담당자)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한 순간으로 루카가 떠올린 장면은 “시스 젠더(Cisgender)”³⁰가 아닌 “트랜스젠더, 넌바이너리(Non-binary)”³¹ 청소년이었다. 자신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성별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소득이 의미있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한편, 윤혜경은 빈곤 청소년 내에서도 자존감을 구성하는 요소와 방식이 젠더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지점을 화장과 운동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랬을 때 소득의 의미와 소비양상 또한 여성과 남성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했던 부분은 청소년 내부의 차이, 가령 성별정체성이나 젠더에 따라 최소한의 소득이 갖는 의미 또한 다르게 기능하지만 자기 정체성과 생활양식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소득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제가 상담을 하면 결론이 심터예요. **기승전 심터**. 이 친구는 폭력에서 탈출을 했고 집에는 희망이 없고 가기도 싫고. 그래서 심터 가야겠다 말이 나오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심터가 얼마나 지옥 같냐면, 욕 잘하는 언니 코고는 언니 냄새나는 언니 나한테 끈대질하는 언니랑 같이 사는 게 심터예요. 그리고 조금만 하면 말 들어야 하지 선생님한테 남자친구 누구 사귀다고 말해야 하지... **심터 생활이 힘든데 소득이 없으니까 먹고 자고 하려면 심터 가야 해, 이 상담을 제가 해야 하는 게 괴롭고**. 그래서 기본소득이거든요 결국. 기본소득이 있으면 고시원 생활이라도 할 수 있고 책도 사 볼 수 있고 공부라도 할 수 있어요. 학교랑 연계도 할 수 있고, 기본적인 게 안 됐을 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미안하고 기본소득이

30) “자신이 사회에서 지정받은 '신체적 성별(sex)'와 본인이 정체화 하고 있는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이 '동일하다' 혹은 '일치한다'고 느끼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페미위키). 청소년-비청소년, 장애인-비장애인이라고 짝을 이루어 쓰는 것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트랜스 상태가 아님(=비트랜스젠더)을 표현하는 단어.

31) “젠더 이분법에 의한 성구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페미위키).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 김학준 (2017 자몽 교육네트워크 9월 모임 속기록)

“이게 남들과 어울려 사는 게 편한 사람도 있는가 반면 불편한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이게 이 아이한테 뭔
가 무조건 쉼터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건 감옥 같이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내가 이 원래 내 가
정을 견딜 수 없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다시 좀 뭔가 내가 싫어하는 공간에 다시 들어간다는 건 이 아이
에게 굉장히 혹독한 상황인 거 같고요. 방이 아니라 집. 무언가 아이들의 그런 집. 그런 집 같은 형태도 괜
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 김지영

“지금 쉼터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혼자 살아보려 애쓰다가 안 될 때 쉼터 들어온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
데 이 정도의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과연 청소년들이 쉼터에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돈이 있으면서 쉼터에 살면 그래도 지금처럼 눈치 보거나 이런 건 덜 할 거 같아요. 약간 그래도 좀.”

- 김선옥(청소년 자립팜 이상한나라 활동가)

집을 나온 청소년들에게 안정된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쉼터의 취지를 떠올려본다면, 쉼터가 ‘집’
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물을 필요가 있다.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서의 ‘집’, 사생활이 보장된 ‘방 아
닌 집’인지 말이다. “주로 탈가정, 탈학교한 10대 여성”들을 상담하며 “기승전 쉼터”가 되는 고민을 나눠준 김
학준은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청소년들이 “고시원이라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때론 싫은 것도
견디며 의미를 찾는 게 인간의 삶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싫음을 내 의지에 따라 피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가이다. ‘위기청소년’이 안정된 주거를 보장받을 권리 차원에서 본다면 쉼터 생활이 힘든데 다른 대안을 찾
기 어려워하는 이들의 삶에 최소한의 소득은 선택지를 더 가질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김선옥의 말처럼 쉼
터 안에서 눈치를 덜 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쉼터가 ‘방 아닌 집’으로 변화할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2) “가난한 사람은 계을 수가 없지 않나요?” -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삶

“그때는 전전 애인이랑 같이 살았었는데, 그러면서 일만 하고. 일을 하는데도 돈이 없었어. 내가 쓴 돈이

얼마 없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막 오래 못한 것도 있는데 월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엄청 촉박 감. 뭐 하나 먹을 때도 계산해야 되고. 그냥 별 거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까 엄청 불안해했어. 돈을 쓰는 족족 마이너스로 줄어드니까. **다들 막 10월에 샌드위치 연휴 좋아하는데, 난 완전 헬이거든. 알바니까.** 주말 공휴일은 오픈부터 6시까지 일 하고. 그게 하루 일상이지. 통째로 쉬는 날이 없어. 진짜 베라(베스킨라빈스) 일하면서 한두 달은 쉬는 날 없었던 거 같아. 그래서 내가 그만둬야 되나 생각했어. 나 색칠 공부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손도 못대. 하고 싶어도 이거 할 시간에 좀만 더 자야지 이렇게 되고. 여가가 없어. 정말 맨날 돈만 벌고 일만 하니까 **진짜 돈의 노예가 된 기분이야.**

(기본소득 같은 게 생기면) **나는 인턴십을 포기하든 알바를 포기하든, 뭐 하나를 포기할 거 같아. 지금 엄청 벅차거든 하루가.** 스케줄 보고 오늘은 몇 시부터 뭘 해야 되고, 하나하나 하는 게. 새날(인턴십센터 이름-인용자 주)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베라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잖아. 근데 하나라도 놓치면 진짜 더 못 버는 거니까 다 하려고 했던 거 같아. 50만원을 받으면 좀 편해지지 않을까. 내가 좀 쉬다가. 지금은 내 시간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들어오면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

- 김수지

“가난한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지 않나요?”

- 노다예

“그렇게 매장에서 빠르게 일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처럼. 추가 인원이 필요하면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그러거든요. 그럼 다 안가고 언니가 가세요. (웃음) 저처럼 항상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언니가 한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항상 다투요. 내가 이 지원을 가고 싶은데 이 언니도 가고 싶어 하니까 서로 가위바위보 하거나 맨날 그런데. **근데 이제 그렇게 받으면 언니가 가세요. 저 괜찮아요. 이런 여유.** (웃음) (인터뷰어: 그러게요. 뭔가 그런 거 상상해보면 즐거워요? 아니면?) 네 즐겁네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상상해보면 즐겁네요.”

- 김지영

김수지는 자신이 좋아하는 “색칠공부”를 할 시간도 없이 “돈의 노예가 된 기분”으로 연휴에도 일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노다예의 통찰처럼 쉴 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다. 노혜진(2017)은 ‘시간빈곤’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단지 노동시간의 과다, 여가시간의 부족 여부만이 아니라 소득

빈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시간빈곤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난할수록 유급노동 시간을 늘리거나 혹은 무급노동을 대체하거나 구입할 수 없기에 무급노동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 즉 소득 빈곤이 야기한 시간빈곤 속에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이는 현재 삶만이 아니라 미래의 ‘기능’과 ‘실현가능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일을 안 하는 청소년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고 인터뷰 과정에서 물었을 때 김수지가 답했던,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공부를 하다가 졸업을 했어. 개네들은 아파트를 지은거야. 근데 나는 약간 초가집을 대충 지어놓은 기분인거야. 약간 그렇긴 한데. (그래도) 개네는 그냥 사회경험이 부족하겠거니”란 말이 ‘시간빈곤’의 정의와 겹치며 씩씩하게 들리는 대목이다.

“왜 이 정도로 움직였는데 (월급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더 움직여야 되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김지영은 일정 수준 보장된 소득이 있을 때를 상상해보며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떠올리니 즐거워진다고 했다. 현재 카페에서 일해서 버는 돈 80여만 원과 엄마로부터 받는 돈 3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고 이중 빚을 갚고 월세 내고 고양이 양육비와 교통비, 통신비를 빼고 나면 김지영이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은 몇 만원 남짓이었다. “지금 내가 내일을 어떻게 살지를 잘 모르겠는데, 내년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싶기도”하다는 김지영의 삶에 생계를 쫓기지 않을 수 있는 약간의 소득을 보장받는 것은 지금보다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간보장소득(MINCOME, a Canadian Guaranteed Annual Income)이란 이름으로 1974년부터 약 6년에 걸쳐 캐나다 Manitoba 주의 작은 마을인 Dauphin 지역에서 진행된 실험의 결과로 정신질환 발병율과 입원율이 떨어진 것을 발견한 연구가 나온 바 있다(Forget, 2011). 관련하여 2017년 초 시행된 핀란드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중간 점검하는 인터뷰에서 KELA(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의 한 관료는 “기본소득이 빈곤을 퇴치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아픈 부모를 돌봐야 해 일을 할 수 없었던 한 여성의 경우 늘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시달렸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며 “560유로가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불안감을 해소해주기엔 충분한 금액”이라고 말한 것이다(중앙일보, 2017). 언급된 그 여성의 불안의 구체적 내용은 집에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였는데, 자신이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수급비의 조건으로 일을 하라고 일자리를 주선해주는 실업보험공단의 전화일까봐 늘 불안하게 지내다 이젠 그 불안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였다(The Independent, 2017).

“쉼터에 있을 때 취약계층 재무설계과정인가 그런 상담사 과정이 있었어요. 에듀머니? 서울시에서 의뢰를 해서 취약계층 분들을 위해서 재무설계를 해주는 거였어요. 그게 보통은 쉼터 거주하는 청소년이나 성

인이나. 실무자 교육도 해주고 일대일 상담도 해주는데 그때 해주신 분 기억이 나는게 (쉽터 청소년은) 설계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설계를 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나가서는 제대로 설계를 하면서 살아라 이려고. 지금의 쉽터 삶이나 이런 것들에선 삶을 계획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하루하루가.**”

- 김선옥(청소년 자립팜 이상한나라 활동가)

“어쨌든 사람들 모두 다 열심히 살고 있잖아. 일을 안 한다고 해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있는 거 자체가 열심히 살고 있는 거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요즘 세상에선...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기회를 주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는 막 다 쓸지는 몰라도 나중에는 계속 돈이 있다는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세울 거 같아.”

- 이다은

“내일이 아닌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내일까지 포함해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중요한 일이고 너무 필요한 일인 거 같아요. 고민이던, 좋은 상상이든 간에 그걸 미리 대비하고, 고민하고 맞닥뜨렸을 때와 아닐 때는 좀 차이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기반이 필요하죠.”

- 루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만약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면 지금보다 삶의 여유가 생길 것 같다고, 단지 내일이 아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삶의 안정이 보장될 때 인간은 ‘하루살이’ 삶에서 벗어나 자기 삶을 계획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를 발견한 기본소득 실험이 있다. 2008년 1월,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한 마을(Otjivero-Omitara)에서 12개월짜리 기본소득 파일럿이 시작했을 때, 그 마을에 사는 부유한 백인 농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들(마을의 가난한 흑인)은 매일 술이나 마셔대지. 그들한테 100달러를 쥐보시오. 그만큼 술이나 더 퍼마실걸요.”(Der Spiegel, 2009). 1천명 규모의 마을, 실업률은 70% 이상, 42%의 아동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고 학교에 다니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대신에 알코올 중독, 범죄, AIDS가 넘쳐나는 곳으로 악명 높은 곳이었다. 그리고 백인 부자 농부들이 설치한 전기 울타리가 즐비한, 극심한 빈부격차가 존재하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BIG Coalition Namibia’는 60세 미만의 모든 주민들에게 월 100나미비아달러(당시 약 미화10달러)를 2년간 지급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20세 이하의 아동들의 경우 1차 보호자자(primary care-giver, 보통은 엄마)에게

현금이 지급되었다. 백인 부유층의 냉소 어린 예상은 달리 결과는 아주 고무적이었다. 술을 사먹는 사람들 대신 생필품과 먹을 것에 돈을 쓰고 그동안 고치지 못했던 집을 손보는 사람들이 생겼다. AIDS 환자들은 치료비를 낼 여력이 생겼고, 농사나 자영업 등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숫자가 늘었고, 절대빈곤에 놓인 사람들이 사라졌다. 여기에 더하여 분석의 틀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남성에 의존하거나 종속되어 사는 여성들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됐다는 점 그리고 비록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정기적인 소득 덕분에 마을 주민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된 점을 파일럿 운영단은 평가하고 있다(Basic Income Grant Coalition, 2009).

이때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기본소득의 원칙 중 ‘주기적으로 지급한다’(정기성)의 해석 방향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민간단체 GiveDirectly가 2016년 말 케냐에서 시작한 기본소득 파일럿은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하루 0.75달러씩 12년에 걸쳐 꾸준히 받는 집단과 2년만 받는 집단, 2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받는 집단 그리고 아무 지원 없는 통제 집단.³² 이 중 2년에 걸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과 매달 걸쳐 지급하는 것을 놓고 비교하면 후자가 형식상 ‘정기성’에 더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일 수 있다. 이때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소득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일시불이 아닌 매달 나눠서 지급하는 정책 뒤에는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tic)’ 즉 국가가 수급자의 소비를 계획해주겠다는 발상이 숨어있다는 지적도 있다(Vox, 2016). 결국 청소년의 삶에서 기본소득의 정기성 원칙이 중요해지는 측면은 단지 액수나 지급횟수의 차원이라기보다 생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충족될 때 자기 삶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가늠해볼 수 있다는 것 아닐까. 안정된 삶에 대한 감각이 생길 때 뭔가 더 하고 싶어지고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김선옥은 아래와 같이 자신이 만났던 청소년들의 삶을 근거로 설명했다.

“만약에, 돈을 주면 다 흥청망청 쓰지 않을까, 이 돈이 있으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에 동의가 되지 않는 건, 자립훈련매장에서 제가 만났던 청소년들이 돈을 받았잖아요. 돈을 받고 쓰는 걸 보면 오히려 월급제로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돈을 쓰는 것이 보여요. 오히려 가끔 소득이 들어오고 불안정하게 돈이 들어오면 지금이라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게 일정하지 않으니까 생활이 될 수 없으니까 뭔가 계속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그니까 이걸 갚아내고 갚아내고 해야 하니까

32) 실험 참여자는 총 26,000명을 예상하고 있고, 성인adult으로 한정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GiveDirectly 홈페이지 참고. <https://www.givedirectly.org/basic-income>

계획적으로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계획적이라고 해봐야 그 돈을 쓰는데, 월급을 받았을 때 생활계획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생활의 안정이 오면 다른 걸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 돈을 이만큼 받았으니 까 그러면 일을 하기 싫어하거나 그래야 하는데 아이들은 돈을 더 벌고 싶어하기도 하고 더 배우고 싶어하기도 하는 게. 저도 그런 거 같거든요. 근데 아이들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는 것은 너무 이유가 없는 거죠.”

- 김선옥(청소년 자립팜 이상한나라 활동가)

3) “사준다고 땡땡거리게 돼요” - ‘관계’를 위한 돈, 돈만이 아닌 ‘일’

“아이들과 접촉과 돌봄의 문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거든요. 이제 부모가 똑같은 노동시간을 하더라도 조금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정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똑같은 시간을 만나더라도 다른 반응과 다른 태도로 해줄 거라는 거죠. 그런 작은 차이들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요..저는 아이를 키워보면서 그런 게, 그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 윤혜경(전 찾아가는동주민센터 마을 업무 담당자)

“(돈을 조금 더 벌게 된다면?) 집에서도 맛있는 걸 많이 먹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돈을 안 써도 되니까 아빠도 개인적으로 쓰고 싶은 돈을 쓸 수 있을 거 같고. 아빠가 기분 좋으면 우리도 기분 좋겠죠. 집에 에어컨도 생길 거 같아요. 돈이 생기면. 제가 집에서 에어컨을 틀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너무 더우니까. 지금 여름에선. 그러면 짜증을 덜 내겠죠. 시원하니까. 그러면 나도 좋고 동생도 좋고 안 싸우죠.”

- 임현주

소득이 있을 때 개인의 ‘풍요’만이 아니라 관계, 특히 가족 관계 안에서의 ‘풍요로움’을 부를 수 있는 측면을 윤혜경과 임현주 모두 언급했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는 말, 그렇다면 거꾸로 생존에 대한 불안이 줄었을 때 인간이 어떤 풍요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한 예시로 윤혜경은 똑같은 노동시간을 쓰고 있더라도 조금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정서적 여유가 생길 수 있고 그것이 부모자녀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언급했다. 임현주는 “아빠가 기분 좋으면 우리도 기분 좋고, 에어컨을 틀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시원하니까 짜증을 덜 내고 동생과도 안 싸우죠”라고 말했다. 집에 에어컨은 있지만 자기

방이 아닌 큰방에 있고, 방문을 닫고 선풍기를 틀고 자려니 창문을 좀 열어놓고 싶지만 1.5층이라 마음대로 열 수도 없는 조건에서 그녀가 말한 에어컨은 단지 일개 가전제품이 아닌 삶의 질을 지금보다 총체적으로 나아지게 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담겨있었다.

“확실히 돈이 있으니까 옛날보다는 사주려고 하죠. **사준다고 멍멍거리게 돼요.**”

- 임현주

“빈곤가정의 아이들은 돈이 굉장히 교우관계에서 핵심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하고 떡볶이 먹고 싶고 햄버거 사먹고 싶은데, 그 돈이 없어서 끼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래의 관계에. 대부분 청소년들이 더치페이 할 거 아니에요? 햄버거 요즘 가격 4-5천 원 하잖아요, 그 돈 못 내요, 웬만한 청소년들은. 꿈도 못 꾸죠. 아예 꿈을 못 꾸고 거기서 제외된. 그러면 또래가 형성이 안 되는 건 당연하죠.”

- 윤혜경(전 찾아가는동주민센터 마을 업무 담당자)

“어쨌든 OO와 XX(발달장애 자녀 둘)가 주체가 되면 본인이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더 많은 학습 조건이 필요하니까, 여가생활에서 학습까지 하려고 하면 많은 가야할 곳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필요한 조건에 의해서 사게 되면? 더 재밌는 거는, 혹시라도 형제가, 아니면 누가, 이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돈이 쓰이는 게 더 많으니까. 밥을 먹으러가도 그 사람이 사달라고 갈 수도 있는 거지. 사람 관계상도 더... 이 사람들에게 시쳇말로 나올 것이 전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짐을 져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더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가, 뭔가 같이 하려고 할 수 있는 게 많다면, 아닌 말로 더 같이 관계할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 우진아(발달장애자녀들을 둔 부모)

“그런 돈(기본소득)이 있다면 나중을 위해서 자기는 저축하고 집을 구하는 이런 투자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매달 아무 조건 없이 나온다고 하면 일은 할 거야 물었더니, 그것과 그거는 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돈이 나오더라도 일을 하는 건 이 두 명의 친구한테는 **일이 꼭 돈을 위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일이라는 게 돈도 벌어지기도 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돈도 필요하지만 생계가 유지된다면 자기가 공장에 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일을 할 거라는 거죠.**”

- 김선옥(청소년 자립팜 이상한나라 활동가)

송하진, 우성희(앞의 글; 261쪽)는 ‘돈을 대체하는 관계, 관계를 대체하는 돈’이란 표현을 통해 돈이 관계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돈을 대체 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는 측면을 지적했다. ‘소득이 적어도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관계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돈이 있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자녀를 둔 우진아는 친구에게 밥을 사주고 “땡땡”거릴 수 있는 경험이 장애를 가진 존재들에겐 더 특별한 의미일 수 있음을 말했다. “나올 것이 전혀 없는” 장애인에서 “아닌 말로 더 같이 관계할 일이 많아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 즉 그동안 독립적 주체로 대접받지 못하는 부분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냐는 말이었다. 이는 돈으로 관계를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돈의 사회성”, 즉 “‘현금관계’는 사회성, 상호성의 관계들과 배치되지 않으며, 이 관계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데 있어 핵심적”(제임스 퍼거슨, 2017; 237쪽)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한편, “일이 꼭 돈을 위한 건 아니라는” 김선옥의 말은 방금 확인한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돈’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돈을 위한 것만이 아닌 ‘일’의 의미를 떠올리게 만든다. ‘월급의 반은 욕값’이란 자조적 표현에서 드러나듯 현실의 많은 사람들은 “싫어도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다. 그런 일만 남은 사회이니 기본소득에 대한 흔한 반론으로 “돈 주면 누가 일하겠어”란 말이 나오는 건지 모른다. 기본소득은 임금노동만 ‘일’이라는 상식에 질문하고, 임금노동만이 아닌 다른 의미 있는 일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하승수, 2015; 31쪽). 그럴 때 노동과 여가라는 이분법 속에 “어떤 때는 부지런하기만 하고, 어떤 때는 게으르기만 한 우스꽝스러운 반쪽짜리 존재”(헤니 외, 앞의 글; 44쪽)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김선옥의 말처럼 “돈도 벌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이기도 한 일에 대한 상상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조건 없는 지급된 현금이 ‘일’하지 말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돈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다.

4) “학원 갈 시간에 난 돈을 더 벌겠어” - 삶을 그리는 상상력의 확장

“나 요즘에 학교에서 플로리스트 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 근데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근데 꽃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 진짜 비싸거든. 그런 것도 사서 해보고 싶고. 재료비로 쓰고 싶고. 항상 걸림돌이 있어. 뭔가를 시작할 때. 뭔가 필기 이런 게, 자격증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재료비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되고, 꽃가위 이런 것도 내가 사야 되고, 바리스타 때도 그랬어. 이번에 유럽바리스타 자격증 준비가 엄청 싸게 나온 거야. 30만원에. 한 달에 4번 강의 듣는데. 그래서 좀 아빠한테 부탁해서 받을까 했는데, 너무 그런 것 같아. 내가 이걸 해서 딸 지 못 딸 지도 모르는데 그걸 위한 준비를 내 돈 주고 몇 십 만원 주고 해야 된다는 게, 하다못해 셔츠, 앞치마, 행주 다 사야 되잖아. 그게 너무 부담돼. 그래서 도중에 안했어. 왜냐면 응시료가 한번에 10만원씩인데

너무 아까웠어.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붙을 수 있는. 선생님들은 이것저것 다 해보라고 하는데 그게 안 돼. 돈이 없으니까. 난 뭔가 그랬어. ‘그걸 배우러 학원 갈 시간에 난 돈을 더 벌겠어’ 있어. 아까웠어. 학원에 가는 돈이랑 시간이.”

- 김수지

알바를 하면서 평일 낮에는 인턴십센터에서 플로리스트 과정을 듣고 있는 김수지는 그 과정이 재미있어서 자격증 과정도 알아볼까 마음이 들지만 비용 때문에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정말 필요하겠다면 싶으면 아빠에게 돈을 부탁해볼까 싶기도 하지만 자신이 붙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고 했다. 시험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걸 배우기 위한 시간과 돈을 들이느니 그 시간에 일해서 돈을 더 벌겠다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 선택에서 밀린 가치가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질문하다보면 사회의 평등하지 않은 선택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 말이다.

“졸업한 고3들이 부산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거를 뭐지 뭐지 피피티 만들어서 발표하고 거기서 선정된 뭐 해가지고 부산 여행을 가게 됐는데, 부산은 너무 적지 않나. 하여튼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거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그거 때문에 저희도 저희 고등부도 일본 가자. **그거 잘 쓰면 갈 수 있다 했는데 좀 더 아 뭐라 해, 그냥 후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 임현주

“그 아이들은 가족끼리 그런 여행을 가는 거를 상상을 못하고 살았으니까. (정보나) 이런 게. 자기 삶에 있어서 그런 경험이 자기의 영역이나 내가 생각하지 않은 영역이 너무 많으니까. **뭔가를 꿈꿔볼 수 있겠죠. 새로운 걸 도전해볼 수도 있겠고.** 그런 게 주어진다면 결코 청소년들이 돈을 함부로 쓰지는 않을 거 같고”

- 윤혜경(전 찾아가는동주민센터 마을 업무 담당자)

“적당히 여행갈 수 있을 만큼? (돈이)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 노다예

“저는 좀 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제가 도와주는 친구들은 좀 더 형편이 나아질 거 같고, 저희 학교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용돈을 많이 받는 친구들은, 좀 더 많은 활동이나 그걸로 저금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거 같고,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 좀 더 생길 수 있을 거 같아요. 부모님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도 많이 사기도 하잖아요? 콘돔 같은 것도 요즘엔 많이 갖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저희 학교는.”

- 김다빈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여행을 가고 싶다는 청소년들의 응답이 꽤 있었다. “세월호 때”라서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다고, “제주도도 못 가봤어요”라고 말한 노다예는 돈이 생기면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했다. “여행이 사치가 아니”라고 말했던 임현주는 여행을 위한 돈을 지원받기 위해 “만들어서 발표하는” 과정보다 “그냥 후원”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위의 김수지가 택한 삶의 전략과 같이 임현주 또한 만약 뭔가 신청을 하고 선정받는 식으로 여행 지원금을 받게 되는 방식이라면 준비했다 떨어지는 것이 “시간낭비”이니 “차라리 직접 벌어서” 가겠다고 했다.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이 두 사람과 달리 “용돈 중에 2만원 정도”를 사회단체에 후원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에 있는 김다빈은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문화생활을 좀 더 즐기고 싶다고 했다. 서로 다른 경제적 문화적 자본의 차이가 개인의 삶에 대한 상상력 차이를 낳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빵’만이 아닌 ‘장미’도 필요한 존엄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조건 마련의 중요성으로도 읽히는 부분이다. 사람이 일 ‘만’ 하고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 웃고 놀고 즐기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 모두에게 주어지는 조건 없는 현금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임금노동을 통한 생계 해결에 대한 불안이 사라질 때 “돈이 아까워서, 불을 확신이 없어서” 포기했던 것들을 도전하고 새롭게 꿈꿀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우리가 다 해주는데 니네가 뭐가 부족해 이렇게 아니면 그거 필요하면 여기 와서 하거나. 우리가 연결해 줄게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만의 방식이나 정말 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거나 그렇게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야지 사실은 우리의 관계도 풍성해지는 거 같거든. 애들이 뭘 하고 와야 애깃거리도 생기는데 너무 뻘한 거야 맨날. 그렇고 나서는 왜 이렇게 청소년들은 여기에만 있으라 그러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크면은 더 넓은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왜 맨날 여기만 지리공상처럼 있고 뭔가 하라 그래도 도전도 안 하는 거 같고. 너무나 이 공간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 김영원 (지역아동센터 교사)

“만약에 (임금이 지급되는 인턴십과 돈이 안 나오는 수업 중에 학생들이 선택하는) 게임을 붙이지 않고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면 친구들은 좀 더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친구들이 원하는 수업도 실제로 더 열 수 있을 것 같고, 친구들은 툭툭 던지거든요. 선생님 그냥 솔직한 성교육도 하고 싶어요. 성 토크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 제약 안에서는 뭔가를 짜고 넣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그런 건데, 실제로 친구들 안에는 그런 욕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찾고 싶고.

진짜 한 인간을 놓고 봤을 때 뭘 원하는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좀 플랜을 갖고 같이 갈 수 있는 힘을 좀 가진다면 그러면 이들의 무기력함이나 이런 건 우려할 상황은 아닌 거 같고, 그리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립에 대한 훈련 부분도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 신선웅(늘푸른자립학교 실무교사)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이 직접 쓸 수 있는 약간의 현금이 생겼을 때 교육 현장, 자립지원현장의 모습에는 어떤 변화들이 상상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자신도 “욕구를 해결해 주는 방식이 꼭 돈이어야 할까”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말한 김영원은 “어떤 욕구인지를 판단해서 지지할거냐 말거냐”가 아니라 돈을 써보는 “시행착오”도 필요하겠다고 나중에 덧붙였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의 관계도 풍성해질 것” 같다는 말을 이어갔다. 임금 개념의 수당이 주어지는 인턴십 과정과 학력취득 과정 중에 선택하라면 자기도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인턴십을 할 것 같다고, 지금은 “게임”이 안 된다고 말한 신선웅은 조건이 달라지 않은 현금이 지급된다면 혹은 수업을 듣더라도 인턴십 과정에서 받는 것과 비슷한 액수의 돈이 지급된다면 청소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을까 예상했다. 청소년이 무기력해지는 것은 “의식주조차 해결되지 않을 때”이고, 그 부분이 해결된다면 한 인간을 두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신선웅의 이야기는 청소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하고 의미있는 자립지원체계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들렸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여유를 갖게 된 인간이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 탈학교 청소년인 이정주는 다음과 같이 ‘희망론’으로 얘기해주었다.

“우선은, 여유가 있어야 사람들이 뭔가 다른 걸 바라보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돈이 있어야 아, 나 저거 배워 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생각하지 돈도 없는데 어떻게 저걸 해? 그러니까 뭔가 먼저 동의를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들어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돈이 들어와서 나 이제 저거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많다

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몇 달을 쥐가지고 PC방에서 한 몇 개월 돈을 그렇게 낭비를 해도 언젠가, 유익한 일을 한번 시작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다음에는 또, 아 이번에는 이 5만원 저렇게 써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을까요? 희망론! 헤헤. 기회가 주어지면서 또 뭘 해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 이정주

2. '모두에게, 개인에게, 조건 없는 현금 지급'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

"빈자가 (임금)노동에 대한 호혜적 교환이나 선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또한 지원, 자선, 도움의 손길 같은 일방적 선물로서가 아니라 몫으로, 정당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받는 정당한 배분의 차원에서 분배적 지급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회적 분배를 둘러싼 문제들, 즉 낙인과 모욕, 수치, '거저 받는 다'는 비난 때문에 생기는 자존감의 결여 등 골치 아픈 수많은 문제가 일거에 사라질 것이다. 사실 현금지급이 정당한 몫으로, 정당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응당 배분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만 있다면 보답의 기대도, 빚도, 수치심도 사라질 것이다. 어느 누구도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는 게 아니다."³³

필립 판 파레이스는 공공부조(Social Assistance Schemes)의 무조건성을 말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파레이스, 2016). 1) 현금 지급, 2)사회보장 기여금을 냈는지 묻지 않는 것, 3)해당 나라의 시민권자에게 한정하지 않는 것. 이에 기본소득은 보다 확장적 무조건성의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라는 것. 2) 보편적, 즉 다른 원천에서 나오는 소득과 무관하다는 것. 3) 의무가 없다는 것, 즉 일하고 있는지 혹은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6년 서울에서 열린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 일정 중 기본소득을 다시 정의해보는 워크숍에서 도출된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오준호, 2017; 21쪽). 보편성(universality), 무조건성(unconditionality), 개별성(individuality), 현금지급(cash based), 정기성(regularity). 이 중 정기성의 의미는 예측가능함이라는 측면에서 앞서 다뤘고, 나머지 네 가지 원칙이 청소년의 삶에 의미를 갖는 부분들을

33) 퍼거슨, 앞의 책; 309쪽.

살펴보자.

1) “막 쓰면 돈 주는 취지에 어긋나는 거니까” - 왜 ‘모두에게’인가

“제일 나한테 필요한 걸 살 거 같아요. 진짜 생활에 필요한 뭐... 집에 쌀이 떨어졌다 뭐. 완전 필요한 거 사야죠. 이 돈을 소중히 써야할 것 같은 느낌? **막 쓰면 돈 주는 취지에 어긋나는 거니까.**”

- 노다예

“내가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것 듣고 굉장히 놀라웠는데 그 지원을 해준다고 아이들이 사회에 무언가를 베풀까요. 이런 의문점을 갖긴 해요.

(인터뷰어: 근데 김지영님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회에 제가 공헌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 김지영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는데 학생이 안 나타나서 안 되는 경우 있을 때 이제, 제가 만나서 야아~ 선생님 이렇게 곤란해서 어떡해, 선생님 죽을 뻔 했다야, **그러면 그 학생이 막 죄송해요, 돈도 안 내고 다니는데.. 돈도 안 내고 다니는데.. 학원비도 안 내는데 죄송해요.** 그럼 이제 막 내가 화를 내지, 야, 누가 그랬어? 안 내도 돼~~ 너희들은 요구할 권리 있어! 더 많이 해달라고 할 수 있어!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 너무 화가 나. 왜 나한테 죄송해? 아니야! 이런 거.”

- 윤혜경(전 찾아가는동주민센터 마을 업무 담당자)

‘선별’의 과정은 ‘받는 자’로서 ‘주는 자’가 뭘 원하는지 파악하여 스스로를 검열하는 효과를 낳는다. 기본소득이 등장한 배경에 “갈수록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신의 기여에 대해 돌려받는 방식이 아닌 ‘비기여적non-contributory’ 성격의 현금 전달 방식을 고민할 필요”(Standing, 2014)와 “우리가 각자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고 인정”(밀롱도, 2014)하는 철학이 있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근데 사회에 제가 공헌하고 있는 걸까요”라는 김지영의 말은 씩씩한 여운을 남긴다.

나중에 알바를 하면 사고 싶던 옷을 살 것이라고 말했던 노다예는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면 무얼 하겠냐는 질문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걸 살 것 같다고 하며 쌀을 언급했다. 앞서 확인된 욕구는 ‘옷’이었는데 나중

엔 ‘쌀’이 된 것이다. 그럼 돈을 주면 술을 사먹을지 모르니 가난한 사람들에게겐 돈 대신 쌀을 주겠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떻냐고 물었을 때 노다에는 “주시는 분 입장에서서는 당연히 이 사람들 의심을 하게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럼 완전 사육당하는 기분 아닐까요? 자기 여가도 하나도 못하고, 음식만 주는 거니까” 라고 말하며 “차라리 돈을 주고 영수증 같은 걸로 증빙”하는 방식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내 곧 다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증빙을 하라고 하면 진짜 눈치가 보이거든요. 아 어렵다”라면서 웃었다.

기본소득청 ‘소’년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스밀라는 초청간담회에서 <한겨레21>이 최근 진행했던 기본소득 실험³⁴을 예로 들며 ‘선한 빈민의 서사’를 언급했다. 실험의 1호 참여자가 된 사람의 어머니가 “너가 첫번째인데 흥청망청 쓰면 다음 프로젝트에 안 좋은 영향 줄테니 잘 쓰라”는 말을 했단다. 스밀라는 “우리 사회가 흥청망청 쓸 만큼 준적도 한번 없는데” 정작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 검열을 하며 ‘선한 빈민’으로서 복지를 받을 자격을 말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며 기존의 전형적 서사에 기대지 않으면서 권리로서 기본소득을 옹호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나눠주었다.³⁵ 그렇다면 기존 선별 지원체계에서 청소년들이 내면화하는 전형적 서사는 또 어떤 것이 있고 어떤 효과를 낳는 것일까?

“나라에서요? 없는 거 같은데요. 빵점인 거 같아요. 지원을 해줘도 부모님이 돈 벌어서 해주는 거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건. 있긴 있어도 되게 자잘한 거.”

- 조민정

“돈이 나오면 쉼터에 살 거 같애 이랬더니 OO(청소년 자립팜 이상한나라 거주 청소년)이 아니라고 그 말도 아니고, ‘그걸 그냥 주겠어요?’ 하는 거예요. (웃음) 근데 거기 앨리스(이상한나라 거주 청소년을 지칭하는 말) 3명 있었는데, 셋 다 “뭐가 있겠조. 조건이 붙겠조” 그렇게 답하더라고요. 난 그냥 다 좋다고 할 줄 알았더니. 그냥 해주는 건 없다. 공짜는 없다. 그게 좀 속상했어요. 반대로 쉼터에서 현금으로 준다면 어떨 거 같아 했더니, 이런 대답이 나온 거예요... ‘쉼터에서 설마 조건 없이 주겠어요. 뭘 해야겠조?’ 그렇다고 하면 그 돈이 반감지 않다는 거죠.”

- 김선옥(청소년 자립팜 이상한나라 활동가)

34) 스토리펀딩을 통해 1천만원의 후원금이 모이면 1명에게 6개월간 월 135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 만 18~34살 지원자 206명 가운데 무작위 추첨하여 ‘기본소득 1호 대상자’를 선정했다. 실험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참고. 한겨레21(2017). “기본소득, 월 135만원 받으실래요? 대한민국이 ‘살 만한 나라’로 보인다” 제1169호.

35) 스밀라 초청간담회(2017.06.07) 속기록 참고.

“그리고 그거를 본인이 대개 노력하지 않았으면 그걸 또 대개 자책해. **최근에는 가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태어났을 때 가난한 거는 불행한 거지만 죽을 때 가난한 거는 그게 아니라 그건 다 자기 탓이라는 거야.** 고등학교생인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 마치 자기가 지금 뭔가를 선택할 때 **자기한테 스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는 다 자기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옛날에 그게 원망스러웠는데 크면서는 그 원망도 자기 탓으로 이렇게 되는 거 같아.”

– 김영원(지역아동센터 교사)

OECD 35개 회원국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뒤에서 두 번째인 국가(히프포스트, 2016), 그 알량한 지원마저도 서로의 불행함을 경쟁하여 받아야 하는 시스템 속에서 청소년들은 개인과 사회에 대한 모종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대한민국 국가가 본인의 삶을 얼마나 지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조민정은 “뺨점”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되게 자잘한 거”를 받고자 선별 심사대 앞에 서본 이들일수록 “그걸 그냥 주겠어요? 조건이 붙겠죠”라는 감각에 익숙해지는 건 아닐까. 그리고 이와 같은 선별의 경험 속에 “가난은 자기 탓”이라는 믿음이 탄생한다.

김경근(2016)은 ‘능력이나 업적에 따라 보상을 다르게 받는 것은 당연하다’(능력주의 태도)는 질문에 대한 16개 시도 중고생 1,212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 사이에 능력주의가 공고한 신념체계로 자리잡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특히 가구소득, 주관적 계층인식, 학업성취도, 부모 교육 수준 등 환경적인 요인은 청소년들의 능력주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계층인식과 학업성취도 등이 낮을수록 능력주의를 믿지 않을 것이란 기존 가설을 벗어난 결과”로 “‘금수저’든 ‘흙수저’든 능력에 따라 대접받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본인 탓으로 돌리는 딱 그만큼의 복지를 둘러싼 무임승차론이 작동하는 논리로 이어진다. 선별의 경험이 연대와 공공성에 대한 감각을 저해한다는 것을 스밀라는 성남시 청년배당 수령자와 서울시 청년수당 수령자의 반응 차이를 들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성남시 모니터링을 하고 배당 받은 분 500명 설문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었는데,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배당을 받음으로써 사회구성원이라는 감각을 체감했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 생각보다 응답률이 매우 높았어요. 이 사회가 나를 돌봐주고 있다는 감각을 느꼈다가 90% 넘게 나온 게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두 번째 인상적이었던 것은 원래는 모든 연령대에 주어지는 것으로 조레가 정해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만

24세만 받고 있는데 내가 나이가 많아져서 못 받게 되더라도 다음 세대가 이후에 이 정책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많은 응답이 나온 거죠.³⁶ 기존 선별 정책에서 문제는 어떤 라인을 그었을 때 그 라인 위냐 아래냐 수급여부가 결정되잖아요. 근데 그 라인은 돈이 많냐 적냐 차이가 아니라 빈곤한 사람과 더 빈곤한 사람 사이 라인이기예, 빈곤한 사람들 사이의 연대를 막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선별적 복지 문제로서. 근데 **보편적 복지가 그걸 없앨 수 있다는 희망을 본거예요.**

이와 다르게 재밌는 게, 서울시 청년수당이, 다양한 청년 가시화하고 현금 지급이라는 점에서 발전적 형태라고 생각했지만 선별적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을 느꼈던 건, 아시는 분이 청년수당 받는 분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수급자가 기본소득을 찬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는 것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받았을 때 효용이 많아서 이게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한 이유가 뭐였을까 질문이 들었는데, 신청서를 낼 때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걸 입증하고 현금을 지급받는데, **이 선별적 경험을 한다는 것이 내가 자격이 되서 받았다는 경험이 정책의 공공성을 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 스밀라 초청간담회 (2017.06.07.) 속기록

‘모두에게’라는 보편성의 원칙은 ‘사회적 부’와 ‘공유’ 개념을 질문하는 기본소득의 철학과 연결되어 있다. 피터 반스(2016)는 “부자가 부유해진 것은 부를 창출해서라기보다 공유재에서 정당한 몫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뺏아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자연, 조상, 우리 경제 전체가 창조해 낸 부의 총합”인 공유재는 ‘공동 재산shared wealth’ 혹은 ‘공공 재산common wealth’로서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근거를 찾았다. 유전 채굴권 수익에서 나온 배당금을 모든 주민에게 1982년부터 지급해온 알래스카 영구기금(APF)³⁷에는 ‘공유’였던 것에서 나오는 공동의 이익에 대한 각 구성원의 몫을 평등

36) 더 자세한 내용은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와 녹색전환연구소가 함께 발간한 “청년배당 모니터링 및 공론화 사업 종합 보고서” 참고.

37) 이 배당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전 채굴권 수입의 1/4을 매년 영구기금으로 적립하고, 이 기금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 이 투자 수익의 배당금을 1년간 알래스카에 거주한,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한다. 1년에 한 번씩 그해에 지급하는 배당액이 발표되는데, 1982년 첫 지급을 시작한 이래 매년 1인당 평균 연 1,150 달러(약 130만원)가 지급되어 왔고, 작년 배당금은 1,022달러였다. BIEN News(2017)참고. 이때 알래스카의 주민 대부분이 자신이 받는 배당을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이 아니라 알래스카 주의 자연 재산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정치인이 배당을 줄이려는 시도가 주민들의 적법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여겨진다는 점(피터 반스, 앞의 책; 119쪽)이 흥미롭다.

하게 배당을 해야 한다는 철학이 반영되어 있다.³⁸ 앞서 윤희경이 “너희들은 요구할 권리가 있어”라고 말한 것은 개별적 존재로서 청소년도 이 사회 안에서 정당한 몫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환기한 말이기도 하다.

뭔가 요구하기보다 욕구를 참는데 익숙해지는 삶의 조건에 있는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죽고 70년이면 저작권이 만료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인용해서 엮서 같은 거 디자인하고 굿즈 만들어서 팔고” 한다는 김다빈의 이야기는 같은 청소년이지만 다른 삶의 양식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질문하게 한다. 문화생활을 즐길 뿐 아니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자원을 만드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고 다양한 사회활동에도 참여하는 김다빈의 삶의 배경엔 부모의 경제, 문화적 자본이 있었다. 가족의 경제적 지위 차이에 따라 삶의 양상을 둘러싼 너무 많은 것들이 초기부터 결정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고민하는 것, 여기서 ‘본래 모두의 것’이거나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공유재에 대한 각자의 몫이란 측면에서 접근하는 ‘모두에게’ 원칙은 ‘누구나’ 그리고 ‘함께’ 존엄하게 살 권리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2)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 ‘직접 지급’이 갖는 의미

“(인터뷰어: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지원이 필요하긴 하다, 그래서 지원을 하겠다 근데 청소년들은 돈 관리를 잘 못 할테니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그 돈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아 그럼 안돼요. 꿈을 반대하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걸 다른데다 쓰세요. 실제로 그런 애들도 많아요. 솔직히 설날에 세뱃돈 같은 거 받으면 그거 다 부모님이 가져가시는데.”

- 조민정

“개네들이 무슨 돈이 필요해? 그러겠조, 그 논리죠. 그리고 부모들이 다 갖다 쓸 텐데. 빈곤 가정 청소년들은 아빠가 가져다 술 마시고 그럴 텐데, 그 돈 가져다. 아주 수없이 많은 논리가 만들어지겠조.”

- 윤희경(전 찾아가는동주민센터 마을 업무 담당자)

38) 알래스카 사례 외에도 ‘본래 모두의 것’이거나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공유재에서 나온 이익을 모두가 나눠 갖는다는 배당의 철학을 발견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 가령 자연이 준 풍부한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에서 나온 이익을 주민들이 나눠 갖는 것(하승수, 2015), 사람들의 활동 정보들을 수집축적한 ‘빅데이터’로 이윤을 취하는 페이스북의 수익을 이용자들이 나눠가질 권리가 있다는 주장(Financial Times, 2017) 등.

“기본소득을 받는다 해도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받았으면 좋겠어. **가족단위로 받으면 가족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아با나 엄마가 받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따로 나와서 살면 내가 받는 돈은 하나도 없겠지. 그럴까봐. 그래서 그냥 개인으로 받는 게 좋겠다 생각했어.**”

- 이다은

“장학금 연결해도 다 부모님이 가져가. 우리조차도 그걸 애한테 줘야지 생각을 안 해 봤던 거 같아. 왜냐면 부모의 살림이 너무 뻥해 가지고 그래 부모님이 잘 쓰시면 다행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거야. **이 청소년을 1차적인 욕구의 대상으로 잘 생각을 못하기도 하는 거지.** 부모의 필요가 채워져야지 애들도 안정이 되지 이런 생각이 훨씬 강한 거야.

지금도 알바비를 부모님들이 직접 가져가는 경우도 많아 우리 같은 경우는. 통장은 애 이름인데 통장을 부모가 관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청소년은 알바를 하지만 그 돈을 자기가 온전히 쓴다거나 그렇게는 못하지.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부모는 애한테 그 돈이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다 필요한 생활비로 쓰시는 거지. 아이의 1차적인 욕구 그런 거 말고,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같이 쓰는 방식인 거지. **그래서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을 떠나서 만약에 지금이 된다면 청소년에게 바로 가야 되는 것 같아.**”

- 김영원(지역아동센터 교사)

가구 단위의 지원 방식 속에 청소년이 더 종속적이 되기 쉬운 문제에 대해선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여기선 ‘개별성’ 원칙에 더하여 ‘직접 지급’에 주목한 문제의식을 좀 더 살펴보겠다. 이때 ‘직접 지급’의 의미는 가령 청소년 손에 직접 쥐어준다는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청소년이 개별의 몫을 지급받은 기본소득 파일럿들을 살펴봐도 가령 아동에게 직접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나미비아 사례의 경우 “최대 21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1차 보호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지급한다”(Basic Income Grant Coalition, 앞의 글; 21쪽)라고 나오고, 인도 사례의 경우 “18세 미만 아동의 수당은 엄마에게 지급되거나 혹은 지정 후견인에게 지급한다”(Standing, 2013b; 2쪽)라고 적혀있다. 특히 인도 사례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이유로 “특히 여성과 노인, 장애인이 각자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갖게 되었고, 가정 내에서 좀 더 많은 자율성과 협상력 그리고 경제권financial inclusion을 가질 수 있었다는 실험 결과”가 함께 언급되었다. 결국 청소년의 삶에서 ‘직접 지급’이란 말이 갖는 의미는 자신이 속한 공간에서 고유의 필요와 욕구를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가 그리고 돈을 사용함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얼마나 보장받는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윤혜경이 ‘애들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는 말은 청소년 특히

빈곤 가정 청소년들의 삶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단정 짓는 끔찍한 이야기라고 비판한 것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쉼터 선생님들은 왜 너는 그렇게 돈을 많이 사용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돈 쓰는 게 불편하다 그렇게 얘길 하거든요.** 돈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많이 사용하고 그러냐.

원래부터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 돈을 함부로 쓰고 하지는 않겠죠. (인터뷰어: 어릴 때부터 자기가 직접 관리 하는 연습을 했었다면?) 네. 그때도 제가 돈을 쓰지 않으니까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애들은 돈을 사용하는데 너는 왜 돈을 안 쓰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인터뷰어: 그때 진섭 님이 관리를 했다면 달라지는 게 있었을까요?) 그럴겠죠. 돈의 기준으로 하면 돈을 모으면 가치관이 더 커지고 모으면서 사람들이 힘들게 땀 흘려서 벌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인터뷰어: 직접 관리를 해 보면) 네. **직접 제가 관리를 했으면 돈에 가치에 대한, 소중한 그런 게 더 컸겠죠.”**

- 김진섭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설과 쉼터를 옮겨가며 살아온 김진섭의 삶의 이력을 떠올린다면 “돈 쓰는 게 불편하다”는 그의 말이 어떤 경험으로부터 기인한 것일지 짐작해보게 된다. 1인가구로 ‘개인에게’ 지급된 자기 명의의 수급비 통장이 있었음에도 다른 제약이 더 있었던 것이다.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곳에서 본인의 통장을 직접 쓰고 관리하는 경험을 박탈당했을 때 소비의 욕구가 생성되는 것 자체가 가로막히고 돈을 쓰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는 태도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 최근 한 TV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회자되는 “돈은 안 쓰는 것이다”는 말을 김진섭의 삶에 대입해본다면, 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안 쓰려고 노력하는 자와 아예 자신이 직접 써볼 기회를 박탈당했기에 소비를 억제하거나 불편해하는 존재 사이의 거대한 삶의 조건 차이가 드러난다. “원래부터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 돈을 함부로 쓰고 하지는 않겠죠”라고 말하는 지체장애 3급인 김진섭이 시설에서 자기 돈을 직접 쓸 수 없는 조건에 놓였던 배경을 쫓다보면 ‘미성숙하기에 비청소년의 보호와 돌봄이 필요하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인권의 이름으로 논파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후견인 제도가 개인 어떤 한 사람이 판단하는 일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거예요. 저도 내 두 자녀가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후견인으로서 이야기하게 된다면... 늘 판단은

오류가 있게 돼 있거든.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느낀 지식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되게 아파, 급하게 수술 들어가야 돼, 그럼 **후견인 한 사람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거든요.** 의료적 판단이 필요하잖아.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 봐 왔던 사례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이래, 이런 판단이 됐으니 뭔가 만들어지고 바로 이게 연결됐을 때 한 시스템으로 동시에 움직여져야지.

(그래서) 원래는 후견인이 되려면, 국가책무를 담당하는 기관, 그러니까 뭐 주민센터나 이쪽에서 관리 감독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의사, 왜냐하면 병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의료적 접근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변호사, 돈의 개념을, 전체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후견인이라는 사람, **이 넷이 하나의 팀 체계로 몇 사람들을 가지고 늘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공유하면서 확인하고 가야지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돈을 어떻게 썼을 때, 너무 비용에 비해서 과해서 산다, 그럼 그런 것들을 조금 조율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발달장애인이 그래야 되고 치매 노인들이 그래야 되는 것...** 노인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그리고 외국은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후견인 양성과정이란 걸 했고, 거기에는 발달장애인과 조금 더 잘 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있어. 거기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없어. **국가 책무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 우진아(발달장애자녀들을 둔 부모)

청소년이 차별받는 논리와 유사하게 장애인 역시 이 사회에서 '미성숙' 논리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기 쉬운 위치에 놓인 집단이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공후견 지원사업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후견인이 1인으로 한정됐을 때 "공간만 두지 않았지 시설이랑 다를 게 없다"고 우진아는 말했다. 자신도 혼자서는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후견인제도가 하나의 팀 형식으로 운영되면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³⁹⁾ 가야한다는 지적이었다. 기본소득을 '직접 지급' 하는 주장이 어떤 존재에겐 '직접'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직접'이란 말 속에 담고자 했던 자기결정권이 실현되는 방식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영감을 주는 이야기였다.

3) "돈을 어떻게 쓰는지 자기 마음인 거잖아요" - 왜 '조건 없는 현금'인가

"그이가 돈이 필요한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럼 어떻게든 돈을 만들 친구인데, 그런 사정

39) 장애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

들에서 늘 뭐 씬터에서 결국에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그이가 빠져나온 위험한 상황들을 또 만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늘 이이한테는 계속 그런 주변의 상황들이 맴돌고 있었으니까 그것들은 사실 이이들이 선택해서 가는 거라기보다는 약간 떠밀리다시피 해서 그냥 들어가게 돼버리고 계속 어떤 폭력에 놓이게 되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 고리를 약간 끊을 때에는 약간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냥 **안전한 주거 씬터 이게 다는 아닌 거 같아. 아무튼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이의 일상을 유지하는 힘들. 담배한테 굉장히 많이 기대고 있다면 그게 중요한 건데, 담배가 없어서 뛰쳐나가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것들** 좀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게 **그런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거.** 청소년들이 담배... 그래서 주로 그렇게 해서 현금지급하지 말자고 하는 거겠죠?”

- 변미혜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활동가)

“근데 이제 우리조차도 사실 뭔가 지원을 할 때 어디에 쓸지 이런 거 없이 현금 지급을 하는 경우가 없는 거야. 항상 (용처가) 지정되어서 그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인 거지 안 그러면 현물이거나. **청소년들한테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돈’ 그러면 자본주의적으로, 누구나 돈을 주는 순간 아이들이 관리 못 하고 막 쓸 거고 약간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예를 들면 꼭 필요한데 쓰는 게 아니라 옷을 산다거나 피시방을 간다거나 주전부리를 한다거나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되니까 **현금이 딱 지급됐을 때 그거를 적절하게 쓰겠냐 하는 물음 이거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거 같거든.”**

- 김영원(지역아동센터 교사)

앞서 소개한 바 있는 'GiveDirectly'의 창립자 마이클 페이에(Michael Faye)는 케냐에서 시작하려는 기본소득 실험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가난한 사람 스스로 제일 잘 안다. 가난한 사람에게 현금을 주자. 그들은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을 스스로 찾을 것이다.”(오준호, 앞의 책; 77쪽). 그는 이렇게도 덧붙인다. “당신이 배고프다고 해서 침대 그물을 씹어먹을 순 없다. 마을 사람들이 풍토병과 설사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마을에 축구공을 원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The New York Times, 2017). 'GiveDirectly'가 총 3,000만 달러(약 320억) 규모, 12년에 걸친 기본소득 파ил럿을 시도하게 된 배경이다.

청소년에게 예컨대 학습지원 프로그램 지원만이 아니라 직접 쓸 수 있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김영원의 고백처럼 용처를 지정하지 않은 현금을 그냥 주는 방식은 아직 한국 사회에서 상상되지 못한 방식이거나 뒤따르는 여러 우려들에 먼저 직면하리라 익히 예상되는 방식이다. 변미혜의 말처럼

럼 어떤 청소년은 담배를 통해 일상을 유지하는 힘을 얻고 있고 그 담배를 살 수 있는 당장의 현금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는 ‘어디 청소년이 담배냐’는 반응에 더 익숙해져 있기도 하다. 청소년의 담배가 진정 걱정된다면 변미혜의 말처럼 “이들이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대안을 만들기보다 비난하거나 욕구를 금지하는 데 더 익숙하다.

세계은행 연구진은 “빈곤한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정말로 술과 담배에 다 써버릴까?”는 통념이 진실인지 밝히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Evans et al, 2014). 이들은 현금 전달(cash transfer)을 둘러싼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 흔하게 들리는 “가난한 사람들은 받은 돈을 ‘유혹비temptation goods’에 탕진할 것”이란 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서 진행된 현금 전달 정책이 수급자들의 소비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핀 19개의 기존 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지급된 현금에 조건이 달렸든 아니었든) 술이나 담배 소비가 실제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힌다. 물론 페루에서 수급자들이 현금을 받고 나서 그 돈으로 곧바로 레스토랑에 가서 치킨을 사먹거나 초콜렛을 사먹었다는 결과가 발견되긴 했지만 아무리 엄격한 정책입안자라도 그것을 ‘유혹비’라고 시기하진 않으리라 생각하겠다는 연구진의 위트가 담긴 연구였다.

“돈 주면 쓸데없는데 써버릴 거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우리는 “쓸모 있게 쓸 것이다”가 아니라 ‘쓸데없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에게 하루의 고단한 노동 뒤에 마시는 술이고, 다른 누군가에게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술이라면 그런 ‘유혹비’는 삶의 질 중요한 부분을 채우는 비용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술 대신 ‘좋은 데’ 썼다고 기존 서사에 기댄 반론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술이 실은 어떤 존재의 특정 삶의 국면에선 가장 절실히 필요했던 것일 수 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감수성이 곧 인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그 사회의 인권 역량일 것이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금을 주는데 충전금액 영수증을 가져와야 했어요. 근데 만약에 학원을 다니면 어디를 다니던 거기에 있는 사람을 관계할 때 드는 비용도 있는 거잖아요. 떡볶이를 하나 먹을래도, 커피를 먹을래도 그런 돈은 전혀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너 좀 쉬어라, 힘들게 왔으면 한두 달 쉬어도 돼 그런데, 친구 만나러 가는 교통비는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 김선옥(청소년 자립팜 이상한나라 활동가)

“어떤 기본적인 삶의 보장의 개념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지급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라고 지정하지 않고

말 그대로 소득을 준 거잖아요? 우리가 월급을 타서 쓰거나 기타 관련 복지를 받을 때 국가의 허락을 받고 이만큼씩 정해서 쓰진 않거든요. 꼭 어디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곳에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는 유희비가 꼭 필요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서구입비가 필요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아까 성별표 현, 어떤 사람에게는 치마 입고 립스틱 입고 아니면 짧게 헤어컷 하고 이런 것들이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 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면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 루카

“친구들이 유희비로 사용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노래방도 가고, 게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게임을 했던 경험이 또 나중에 프로그래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화장품 사는 거도 나중에 뷰티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다 자기를 위한 투자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다 경험이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있기 위한 돈 정도는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 는 자기 마음인 거잖아요. 그걸 유희비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진짜 필요한 데 쓸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자기가 쓸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지원을 얼른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 김다빈

그냥 돈을 주면 막 쓸 것이라는 근거 없는 판단 그리고 인간의 특정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만 지원을 하겠다는 발상 속에 ‘현금’은 조건이 대롱대롱 달린 돈이 되고 만다. 김선옥은 자신이 일한 적 있는 쉼터에서 평일에 다니는 학원비와 교통비는 지원하지만 주말에 친구들과 만나러 나가기 위해 필요한 교통비는 지급이 안 되던 부분을 떠올렸다. 같은 교통카드로 찍히는 돈이지만 ‘공부’를 위한 지출은 인정받고 ‘놀러가는’ 지출은 인정이 안 되는, 인간의 삶을 분절적으로 이해할 때만 가능한 정책의 한계를 꼬집은 것이다. “치마 입고 립스틱 바르고 짧게 헤어컷”하는 데 쓰인 지출은 누군가의 눈엔 불필요한 소비로 보일지 모르지만 성소수자 청소년의 성별표현과 정체체성에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자기 마음”이라는 김다빈의 말은 인간과 삶의 주체성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다름 아닌 말이기도 하다.

4) “너무 청소년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와 현금 지급의 상관 관계

“(인터뷰어: 사람들이 좀 그냥 뭐 어렵든 어렵지 않든 특히 청소년들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청소년들은 다 소득이 없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이 청소년들한테는 이 청소년들이 자기 부모가 얼마를 버는지 상관 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일정액씩 현금을 줘야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들 중에 일부를 줘야 된다 아니면 청소년들은 모두 줘야 된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청소년한테 모두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모두 주고** 또 어른들은 약간 지금처럼(=선별지원) 둘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음. **돈 많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청소년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인터뷰어 : 그래서 청소년들은 다 모두 줬으면 좋겠다?) **별로 많이 바라지도 않아요. 주면 좋죠.”**

- 임현주

‘모든’ 청소년에게 준다는 것, 즉 청소년을 조건 없는 현금을 직접 지급받는 주체로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현금 지급 방식이 상상되지 못한 이유에는 ‘주는 자’의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르겠다. 청소년이 자신에 대한 지원을 시혜나 ‘구걸’의 대가로서가 아니라 권리로 요구할 때 펼쳐질 ‘평등’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말이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리/장소를 갖는다는 것”, “환대는 자리를 내주는 행위”(김현경, 2015)라는 말은 유급노동을 하든 안 하든, 나이가 많은 적든 자격을 묻지 않고 그 존재 자체로 초대될 수 있는 사회의 자리를 만드는 기본소득 철학과 연결된다. 청소년 존재를 둘러싼 기존의 서사와 감각 속에 청소년의 자리없음이 그동안 정당화됐다면, 거꾸로 각자의 정당한 ‘몫’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속에 주체적 청소년이라는 감각을 새롭게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부모님들 눈에는 아직 애니까. 재는 이제 내가 없으면 큰일 날거야 딱 그런 느낌을 받으시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쓸 데 없는 걱정이지요. 이제 자기 알아서 잘 사는 청소년들도 많은데”**

- 조민정

“너무 청소년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못 믿고 사나. 아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이 있어서

잘 쓴다고 치면 그래도 못 쓰는 애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왜 쓸데없죠. 자기한테 쓰는 건데 그게 쓸데없을까요. 청소년도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더 잘 자라서 이끌어 나가야죠. 너무하네.”

- 임현주

“뭔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친구는 계획을 할 수도 있잖아 만약에 한달에 얼마씩 자기가 갖게 된다면 1년 후에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어디를 가고 싶다는 욕구가 있을 때는 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은 오롯이 의존해야 되니까. 의지가 아니라 의존이잖아. 그게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의지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도 바라는 거는 여기를 의지를 하되 의존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이런 현금 지급이라는 게 의존적으로 만들기에는 택도 없는 거겠지만 고걸 의지해 가지고 뭔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넓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 왜냐하면 이 사회가 돈이 있어야 뭔가를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내가 아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맞닥뜨린 ‘애들한테 돈을’이라는 통념이 깨지는 게 너무나 훨씬 어려운 일일 것 같아가지고. 그거 자체가 설득하기가 되게 어려운.... **생각이 바뀌려면 청소년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애들 때는 공부하고 돈 주면 애 버린다 이런... 그거를 어떻게 좀 (바꾸어야)...”

- 김영원(지역아동센터 교사)

현금 지급 방식에 대한 상상을 가로막는 또 다른 이유에는 그 현금을 받아서 쓰게 될 존재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 Kenny(2016)는 미국에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 방식이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추가 입법을 통해 사용처가 덕지덕지 제한되는 문제를 지적한다. 빈곤가구한시지원제도(TANF)의 예를 든 그는 4인 가구에 지급되는 월 최대 497달러는 미국 평균 가구 소득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인데 그마저도 정치인들은 사용처를 제한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켄자스 주에서는 받은 수급비를 “영화관, 네일아트, 라제리, 크루즈 티켓, 문신”에 지출할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가난한 자가 영화를 보는 것은 ‘사치’라는 인식과 더불어 ‘사회복지대상자’는 받은 돈을 ‘막 써버릴 것’이라는 깊은 불신이 있기에 추진 가능했던 법안일 것이다.

‘받은 돈을 필요한 데 쓰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 담긴 ‘필요’의 기준도 결국 그 사회의 통념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준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더불어 청소년에게 현금 지급이라고 했을 땐 “진짜 필요한 데”인지 아닌지 판단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인지, 즉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애초에 청소년이 미성숙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사회 속에서 미성숙을 강요받는 것이다. “자기가 알아서 잘 사는 청소년들도 많은데”, “너무 청소년을 못 믿는 것 아니냐”는 인터뷰 참여자들의 말은 청소년의 정당한 몫과 자리를 요구하는 외침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IV. 나가며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재 그 자체로 삶을 존엄하게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와 국가는 어떤 조건도 없이 이 영토에 존재하는 모든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른 아닌 잔혹성의 한계를 잃어버린 자본주의 체제와 이 체제가 강제하는 삶의 공포 앞에 짓눌린 우리에게 지금과는 다른 세계, 다른 삶의 형식을 발명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묻는 질문이다.”⁴⁰

초청간담회 발제자였던 스밀라는 기본소득이 “세계관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사회가 무엇이고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의 문제이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⁴¹ 질문을 던지는 기본소득 개념이 지금껏 우리에게 익숙했던 감각들을 총체적으로 되돌아보게 한다.

우리는 청소년 14명을 포함한 총 19명의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이 온전한 경제적 주체로 초대받지 못하는 이유와 조건은 무엇인지,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인 것이 어떻게 사회적 지위의 약자성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서사가 만들어지는지 보았다. 지금의 사회복지체계 속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남기는지 살펴면서 조건 없는 현금 지급이 청소년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모두에게, 개인으로, 조건 없는 현금 지급’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았다.

청소년과 기본소득이 만났을 때 새롭게 보이는 질문과 의미들을 살폈지만 그렇다고 ‘조건 없는 현금’이 지금 청소년들이 처한 모든 어려움을 타개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돈이 있어야 뭔가를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그 부분을 다 돈으로만 해결하지는 않으면 좋겠다”는 지역아동센터 교사 김영원의 말을 떠올리며 “돈만 주는 무책임한 사회”(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활동가 변미혜)로 끝나지 않는 다른 무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한다. 이는 “있었으면 하는 건 돈이죠”란 말과 함께 “옆에 든든한 조연자?”같은 그런 사람 한명 있으면 좋겠다는 노다예의 기대가 어떻게 충족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몰래몰래 받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받고 그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토론도 할 수 있다, 이러면 굉장히 달라지죠”라는 윤혜경(전 찾아가는동주민센터 마을 업무 담당자)의 말은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칙을 환기하는 말이자 동시에 ‘현금 지급’이라는 새로운 장이 열렸을 때 생길 수 있는 문

40) 홍세화(2014). “‘기본소득제’를 외치고 쟁취할 때다”. 한겨레신문 2014년 3월 13일자. <http://www.hani.co.kr/> (2017년 10월 20일 접속)

41) 스밀라 초청간담회(2017.06.07) 속기록 참고

제를 근거로 시도 자체를 가로막는 힘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인간에 대한 이해 속에 돈을 어떻게 쓸지 용처에 대한 상상력을 확장하는 것 그리고 시도 과정에의 경험들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이후 새로운 실험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막을 내린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2017년 9월, 포르투갈)에서 Forget(2017)는 세계 각지의 기본소득 실험들 뒤에 따라오는 서사의 차이를 언급했다. 실업과 고용불안 해결책으로 접근하는지, 사회정의와 빈곤해결의 관점에서 접근하는지,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세상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관심으로 접근하는지, 이런 서로 다른 서사들이 기본소득 실험의 성패를 다르게 말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프레임의 이면에 '중2병', '급식충'처럼 혐오의 대상으로 소환되기도 하는 현실에서 기본소득과 청소년의 만남을 고민하는 것은 결국 청소년을 조건 없이 환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시 스밀라의 말로 돌아가 본다. "기본소득이 당연한 권리라면 그걸 받고 삶이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는 것, 기여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기본소득 철학은 그동안 '탈린' 존재 취급을 받아온 청소년의 정당한 자리와 몫을 마련해준다. 청소년과 기본소득의 만남을 고민한 이번 연구가 청소년을 둘러싼 기존의 지배적 서사-너무 강력해서 청소년 스스로도 되뇌는-에 균열을 내는 시도, 청소년의 정당한 자리를 찾아나가는 고민의 선상에서 공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2016). “스위스 국민투표 부결로 끝났지만…기본소득 오해와 진실” 2016년 6월 10일. <http://news.khan.co.kr> (2017년 10월 20일 접속)
- 공현(2010). 『패륜적 기본소득』. “기본소득과 청소년” 토론회(2010년 6월 19일) 자료집.
-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녹색전환연구소(2016). 『청년배당의 모든 것,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기본소득』. 청년배당 모니터링 및 공론화 사업 종합보고서.
- 김진석(2016). “아동수당 도입의 함의와 쟁점”. 복지동향 218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김경근, 심재휘(2016). 「중·고등학생의 능력주의 태도 영향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6권 2호.
- 김현경(2015).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 노혜진(2017). “시간빈곤과 시간불평등의 의미와 실태”. 복지동향 225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뉴시스(2017). “이재명표 '청소년배당' 만18세→고교생 전체로 대상 확대”. 2017년 10월 18일. <http://www.newsis.com> (2017년 10월 20일 접속)
- 다니엘 헤니, 필립 코브체(2015).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 원성철 옮김(2016). 오롯.
- 바티스트 밀롱도(2012). 『조건 없이 기본소득』. 권효정 옮김(2014). 바다출판사.
- 류은숙(2008).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 제131호.
- 리차드 세넷(2004). 『불평등 사회의 인간 존중』. 유강은 옮김(2004). 문예출판사.
- 박기성(2017). 「안심소득제 도입 방안」. 기본소득제 vs 안심소득제, 복지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묻는다 정책 토론회 자료집.
- 서정희(2017). 「기본소득의 국가별 실험」. 복지동향 221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서정희, 김교성, 백승호, 이승윤(2017). 「한국형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단계적’ 이행방안」. 2017 한국 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 송하진, 우성희(2016). 「조건없는 공적 재정지원을 받은 청년들의 삶 경험 탐구: 삼선재단 지역청년활동가 인턴십과 성남시 청년배당 참여자를 중심으로」. 2016년 청년허브 연구공모사업: 청년 자기 삶의 연구자가 되다.
- 안수찬(2011). 「그들과 통하는 길」. 민주정책연구원 사람과정책 창간호.
- 야누슈 코르차크. 『야누슈 코르차크의 아이들』. 노영희 옮김(2002). 양철북.

- 오준호(2017).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기본이 안 된 사회에 기본을 만드는 소득』. 개마고원
- 윤홍식(2017).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기초연금, 사회수당, 그리고 기본소득」. 비판 사회정책 54.
- 이건민(2017a). 「기본소득과 '관대한 기초생활보장'의 '과도기' 조세부담, 사중손실, 재분배규모 비교」. 복지 이슈 Today 48호.
- 이건민(2017b). 「필요의 원리, 응분의 원리, 시민권의 원리, 그리고 청년기본소득」. 제8회 맑스코뮤날레 세션 발표문.
- 이수정, 윤지영, 배경내, 림보, 김성호, 권혁태(2015). 『십대 밑바닥 노동』. 교육공동체 벗.
-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 자립” 밖에서 자립 찾기」 몽실 연구발표회 자료집(2016년 2월 16일). <http://www.hrecenter-dl.org/309/>
- 제임스 퍼거슨(2015). 『분배정치의 시대-기본소득과 현금지급이라는 혁명적 실험』. 조문영 옮김(2017), 여문책.
- 중앙일보(2017).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4개월…AI 시대 대안 될 수 있을까” <http://news.joins.com> (2017년 10월 20일 접속)
- 치이즈(2017). “청소년은 빈곤하다”.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제16호.
- 피터 반스(2014).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 위대선 옮김(2016). 갈마바람
- 필립 판 파레이스(2016). 「기본소득은 왜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적실성이 있는가?」. 안효상 옮김(2016).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전체세션 I. 가시화된 기본소득” 발표문.
- 하승수(2015).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 생태적 전환과 해방을 위한 기본소득』. 한티재.
- 한겨레(2016). “성남시 ‘청년배당’ 오해와 진실”. 2016년 1월 25일. <http://www.hani.co.kr> (2017년 10월 20일 접속)
- 한겨레21(2017). “기본소득, 월 135만원 받으실래요? 대한민국이 ‘살 만한 나라’로 보인다” 제1169호.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3809.html (2017년 10월 20일 접속)
- 허프포스트(2016).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OECD 35개 회원국 중 34위를 기록하다”. 2016년 10월 31일. <http://www.huffingtonpost.kr> (2017년 10월 20일 접속)
- 호야(2017). “존재를 위한 탈-가족.” 청소년 신문 요즘것들 제16호.
- 홍세화(2014). ““기본소득제”를 외치고 쟁취할 때다”. 한겨레신문 2014년 3월 13일. <http://www.hani.co.kr/> (2017년 10월 20일 접속)

- Basic Income Grant Coalition(2009). 「Making the difference! The BIG in Namibia」 Basic Income Grant Pilot Project Assessment Report, April 2009.
- BIEN News. “ALASKA, US: Amount of 2016 Permanent Fund Dividend to be \$1022”. September 29, 2016. <http://basicincome.org/news> (2017년 10월 20일 접속)
- Der Spiegel(2009). “A New Approach to Aid-How a Basic Income Program Saved a Namibian Village” August 10, 2009. <http://www.spiegel.de> (2017년 10월 20일 접속)
- Evelyn Forget. 「Narratives Of Change: Contemporary Basic Income Experiments In Four High Income Countries」, presented to The 17th BIEN Congress in Lisbon, Portugal 2017.
- Kenny, Charles “Give Poor People Cash”. September 15, 2015. <https://www.theatlantic.com> (2017년 10월 20일 접속)
- Evans, David K.; Popova, Anna. 2014. 「Cash transfers and temptation goods : a review of global evidenc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6886; Impact Evaluation series ; no. IE 127. Washington, DC: World Bank Group.
- Financial Times(2017). "Why Facebook should pay us a basic income". August 7, 2017. <http://www.ft.com> (2017년 10월 20일 접속)
- Forget, E. L. (2011). 「The town with no poverty: the health effects of a Canadian guaranteed annual income field experiment」, Canadian Public Policy, 37(3), 283-305.
- Segal, Hugh D(2016). 「Finding a Better Way: A Basic Income Pilot Project for Ontario - A discussion paper」. <https://www.ontario.ca/> (2017년 10월 20일 접속)
- Schjoedt, Rasmus(2016). 「India's Basic Income Experiment」, Development Pathways Issue No 21 April 2016.
- Standing, Guy(2013a). 「India's Experiment in Basic Income Grants」, Global Dialogue Vol,3 Issue 5.
- Standing, Guy(2013b). 「Unconditional Basic Income: Two pilots in Madhya Pradesh」, A Background Note prepared for the Delhi Conference, May 30-31, 2013. available at https://www.guystanding.com/files/documents/Basic_Income_Pilots_in_India_note_for_inaugural.pdf (2017년 10월 20일 접속)
- Standing, Guy(2014). 「From Cash Transfers to Basic Income: An Unfolding Indian Agendas」, The Indi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Vol. 57, No. 1.
- The Independent(2017). “Finland's universal basic income trial for unemployed reduces stress levels, says official”. May 8, 2017. <http://www.independent.co.uk> (2017년 10월 20일 접속)

The New York Times(2017). "The Future of Not Working" February 23, 2017. <https://www.nytimes.com>
(2017년 10월 20일 접속)

The Ontario Government(2017). 「Basic Income Consultations: What We Heard」. <https://www.ontario.ca>
(2017년 10월 20일 접속)

Vox(2016). "A charity's radical experiment: giving 6,000 Kenyans enough money to escape poverty for a decade". 2016년 4월 14일. <https://www.vox.com> (2017년 10월 20일 접속)

대한민국 정책포털 정책브리핑 페이지 <http://www.korea.kr>

보건복지부 복지로 페이지. <http://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식 블로그. <http://blog.bokjiro.go.kr>

서울시 청년정책홍보 페이지. "청년수당 Q&A." <http://mediahub.seoul.go.kr/youthhope/>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KELA) 기본소득 안내 웹페이지. <http://www.kela.fi/web/en/basic-income-experiment-2017-2018>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KELA) 학업수당 안내 웹페이지. <http://www.kela.fi/web/en/financial-aid-for-students-study-grant>

GiveDirectly 홈페이지. <https://www.givedirectly.org/basic-income>

100

100

100

청소년 기본소득,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희망

스텐 | 청학고등학교 학생

8월에 '인권교육센터 들'과 청소년대상 기본소득 지급에 관련한 인터뷰를 한 후, 친구들과 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대부분의 친구들과 나는 용돈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현실을 근거로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비청소년 한 분은 어차피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굳이 기본소득이 필요하냐며 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저 말을 들은 후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은 차상위 계층에 속하고 보호자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사람도 없어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웠던 내 친구였다. 사실 나와 대부분의 내 친구들은 최상위 고소득층은 아니더라도 생활에 문제가 없고, 적어도 집안의 가계를 걱정하거나 보탬이 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최순위 고려사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 어딘가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도 있고, 가난에 내몰려 원하지 않는 일을 하거나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도 있다. 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던 사람에게 그들 모두가 부당한 느낌이 들었다. 이와 다르게 인권교육센터 들의 발제문은 청소년이 미래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져 복지의 대상에서도 벗어나곤 하는 존재가 아니라,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존중과 희망으로 받아들여졌다. 들의 발제문에서는 적어도 청소년을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경제활동의 주체에서 제외하지도 않았고,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과 인터뷰를 하여 모든 청소년이 보호자의 보호를 받고 있지는 않다는 것도 충분히 드러났다. 청소년도 인간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해도 된다고 처음으로 들은 거 같았다.

청소년에게도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을 것

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들지 않는 무언가를 하기란 어려운 법이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의사에 속박 되어 원하지 않는 곳에서 원하지 않는 체험이나 경험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주체적으로 하고 싶은 것, 혹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하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돈이 필요하다. 또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전시를 보거나 박람회에서 정보를 얻는 게 아니더라도 영화를 보거나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는 등의 취미생활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이루는 경험이 되고, 이것은 미래의 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을 취미 생활이 아닌 생계에 쓰는 경우에도 같다. 기존의 차상위 계층 청소년은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돈을 기본소득으로 대신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이나 공부를 할 수 있다. 아니면 기본소득을 받아도 하던 일을 그만두지 않고 번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거나 배우는데 사용한다면 전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자신이 선택한 삶을 좀 더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빈곤층이 줄어드는 대한민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기본소득은 청소년의 능동적인 삶에 대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빈곤을 없앨 수 있지만, 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장점만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청소년에게 조건 없는 현금을 지급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경제 교육의 빈약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경제과목’에 대해 배우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수능 선택 비율이 낮기 때문에) 교과 과정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지 않다. 정규 교육이 아닌 특별활동으로 채택된다 해도 이전의 특별교육 ((예)성폭력예방교육, 소방안전교육) 등의 경험으로는 단순히 일 년에 한 두 번하는 이벤트성 교육이 되기 쉽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불성실하게 들을 수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학교 수업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이 접할 수 있는 경제교육 매체나 기관도 많지 않다. 청소년이 ‘어려서’ 혹은 ‘미숙하기 때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돈의 가치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고 경제 활동에 대한 경험이 비교적 적은 청소년들이 ‘대가 없는 돈’을 지급받았을 때 그 돈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또한 차상위 계층의 청소년을 제외하고 기본소득은 ‘없어도 조금 불편할 뿐인’ 돈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후에 있을 경제활동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다. 이를 막기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기본소득이라는 넓은 품 안에서 노는 청소년을 꿈꾸며

김학준 | 늘푸른자립학교 교사

기본소득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을 한다고 했을 때 '돈'을 주면 좋아질까 아니면 '돈'을 쥐서 더 나빠질까에 대한 생각을 하기 쉽다. 하지만 발제문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소득이 '돈' 자체만을 말하지 않는다. 많은 인터뷰에서 느껴지는 수많은 감정들만큼 우리 삶의 발현은 다양하게 뻗어나간다.

다양한 길에서 인간은 누구나 불확실하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살아가는 누구나 자유와 민주라는 이름에 포장된 불확실성에 놓여있는 것이다. 읽혀지는 삶에 대한 기준들이 달라 누구에게는 그 자유가 폭력으로 사용되고, 책임으로 구속받기도 한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불확실함이 미완숙함으로 읽혀지는 통념이 거대한 폭력시대를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자문해 본다.

청소년에게는 '기회'가 필요하다

본 토론자가 속한 늘푸른자립학교에서는 3년간 '자몽'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자몽을 통해 얻은 결실 중 가장 큰 두 가지 키워드는 '기회'와 '자발성'이다. 청소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분야수업을 열고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 학교는 친구들이 마음껏 끄적여 보는 연습장이 되려고 노력했다. 2년차를 지나고 자몽 3년차를 맞이하면서 그간 자몽에서 발견된 가치들을 정리하여 네 가지 모토를 세웠다. 그것은 '책임 없는 도전, 평가 없는 표현, 제한 없는 지원, 근거 없는 신뢰'이다.

청소년을 지원하면서 책임, 평가, 제한, 근거를 묻는 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박탈감을 되돌려주는 것이

라 판단했다. 자발성에 기반한 기회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다. 친구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했고, 멘토-멘티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기본소득이 가진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자발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틈을 얼마나 열어주고 그 선택을 반영해 주는가.

현재는 자몽의 시스템을 학교 전체 과정에 도입하여 ‘퍼즐식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인턴십과정과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같은 시간에 여러 과목을 열고, 친구들이 직접 시간표를 짠다. 물론 경제적인 지원이 더 절실한 친구들은 주로 인턴십과정을 택하지만, 진로와 자서전 같은 필수수업에서 잠재력을 드러내 보인다. 시간이 지나며 친구들은 자신의 잠재력에 집중하며 용기를 얻어 도전하게 되었다.

기본소득이라는 ‘바탕’에 다시 그려보는 청소년의 꿈

기본소득으로 돌아가 다시 이야기해 보면 돈으로 용기와 도전과 진취적 역동을 살 수는 없지만 기회의 확장, 역량강화의 밑그림, 충분한 연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이는 곧 더 역동적으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음을 뜻한다.

며칠 전, 늘푸른자립학교 친구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무엇이 좋았니?”라고 물었을 때 “나쁜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라는 대답을 들었다. 진짜 나쁘고 좋고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것이라 할 순 없겠지만, 그런 기준과 가치에 있어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존재를 표현할 여유가 생겼다는 면에서 소득은 ‘나’의 삶을 계획하는 바탕이 된다.

작가 이외수는 자본의 논리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며 이렇게 글을 썼다. “사람들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보다 귀한 것을 쓰레기통에 쳐 넣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양심과 사랑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역설적으로 돈보다 귀한 것을 돈이 되지 않아 포기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다. 누가 그 삶을 포기하게 했는가? 누가 포기하라고 했는가? 모든 포기를 개개인의 잘못과 포기한 자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악순환의 연결고리는 계속 될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기본소득은 포기를 완화하는 매트리스가 될 수 있다.

현금지급의 방식에 대한 걱정 그리고 원칙

기본소득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지만, 현재 늘푸른자립학교에서는 인턴십과정에서 현금지급방식을 택하고 있다. 다만 지급은 정확히 책정되고 있다. 가령 지각을 하면 30분 단위로 체크가 되고, 기준시간이 넘어가면 일을 할 수 없다. 친구들은 기상시간을 당기고 아침준비를 서두르며 자연스럽게 시간 관리를 익힌다.

현금이 가진 영향력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어떤 친구들은 매일 현금을 받아가는 반면 일주일단위로 받는 친구들이 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도 하지만, 개인의 성향에 따라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다. 고민되는 것은 일탈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는 것이다. 돈을 잘 모아 어디론가 훌쩍 떠나는 것이 본

인의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일탈이 길어지면서 또 다시 돌아오기엔 너무나 멀리 떠나버리는 친구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경험으로써의 교육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지만, 방임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의 시선이 느껴지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켜온 것은 친구들의 지출에 대한 관심은 가난을 증명해야만 하는 서글픔과도 같은 구속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경제학 수업을 진행하지만, 필수가 아닌 선택수업인 것은 자발성을 기반으로 개인의 선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출된 노력을 잠재력 발견의 도구로

현금은 눈에 보이는 결실과 같은 효과가 있다. 눈에 보이는 결실은 곧 성실함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도덕적 자세와 공동체성도 엿보는 촉매제가 되기도 한다. ‘현금’이 만들어낸 연출이라고 보이기도 했지만, 칭찬과 격려가 더해지면서 실제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본 토론자는 노력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을 기본소득이 찾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뭐든지 노력해야 얻는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노력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더불어 잘한다는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 줬을 때 변화되는 지점을 소득과 함께 발견하게 된다.

누구든 완벽한 지출에 대해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의 삶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누구는 배움에 투자하고 자신을 개발하지만, 누구는 먹거리에 투자하고 자신을 가꾸는 것이다. 행복은 지출항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행복에 가까운 길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기본소득이라는 넓은 품 안에서 노는 청소년을 꿈꾸며

청소년 기본소득에 관한 토론문을 작성하면서 떠오르는 물음이 있다. “왜 아직도 해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 불확실성에 기댄다는 것, 노력이란 담보 없이 지출이 가능한 지점은 이 자본주의사회에 익숙치 않은 개념일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자본으로 보장받고 소득으로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기회를 부여 받을 때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질 수 있는 넓은 품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다시 돌아올 그 품을 기대하며 늘푸른자립학교는 오늘도 친구들을 두 팔 벌려 맞이하고 있다.

보호와 자립의 경계에서 청소년기본소득을 고민하다

이승윤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현재 확대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를 살펴보면 배당 받는 대상을 성인으로 간주하고, 대부분의 논의 및 정책 또한 성인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수당, 여성수당, 노인수당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아동수당의 경우 이들은 주체적인 성인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부모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의 형태도 보편적 수당의 확대가 계획되어 있지만, 이는 한국의 높은 빈곤율에 대한 소득보장 차원의 대응으로 기본소득 확대 논의와는 별개로 확대되어 왔다. 또한 개인단위의 기본소득 지급 논의 역시 성인이 아닌 경우,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전제되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동도 성인도 아니면서도 어느 정도의 일할 능력은 있다고 판단되어 무조건적 지급은 어렵다고 간주되는 '청소년' 대상의 기본소득을 고민해보는 것은, 한국 청소년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중요한 고민이기도 하지만, '기본소득'을 보다 정교하게 이론화하고 실질적인 정책설계를 하는데도 큰 함의를 줄 수 있다.

인권교육센터 청소년 기본소득팀의 연구결과는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과 관련 활동가의 목소리를 들어보며 연구를 진행하여,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연구에도 새로운 그리고 중요한 고민거리들을 던져주었다.

1. 청소년, 자립을 요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보호의 대상일까

연구팀은 “기본소득의 정의에 담긴 모든 개인에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는가 즉 청소년이 독자적인 경제적 주체로 전제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이에 대해, 먼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청소년이 다른 누군가에게 종속되거나 눈치를 봐야하는 위치에 놓이는 보편적 약자성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이 시민권의 주체로 여겨지지 않을 때 소득에 대한 청소년의 요구나 필요는 비가시화되기 쉽고, 혹

은 고려되더라도 여전히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는다는 전제 때문에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비청소년에 비해 적게 책정되거나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을 추가로 고민해볼 수 있겠다. 먼저, 청소년이 경제적 주체로, 그리고 완전한 자립체로 간주되길 우리가 원하는가이다. 만 18세 이하는 아직 부모나 양육자,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심지어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여기 청소년에 대한 성인의 보호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에게 우리는 자립을 기대해야 할지 아니면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할지 16-18세 청소년들의 특징과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청소년 시민권 보장'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보는데 있어, 먼저 청소년의 '자립'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청소년은 어느 정도의 자립을 원하고 사회는 그것을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여겨진다. 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하여도, 보호자에게 지급 아니면 청소년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정책설계 단계에서도 철학적 고민과 증거기반의 이론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청소년은 경제적으로 성인에게 종속관계에 있는 보편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약자성을 완화시키고 사회의 주체로 자립하길 원한다는 주장에 대한 고민이다. 부분적인 경제적 자립은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에게 어느 정도의 자립을 가지고 오는가? 청소년 기본소득은 그것을 달성시킬 수 있을까?

2. 청소년에 대한 사회와 보호자의 책임

위기청소년이 '하루 단돈 만원이라도 벌려고' 쉽게 성매매로 유입된다면, 이것이 즉각적인 현금지급을 통해 이러한 경로로의 진입을 막을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는 돈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많은, 다시 말해, 만원 한 장의 가치가 높다. 이러한 사회에 만원을 한 장씩 지급하는 것이 빠를까, 만원 한 장의 가치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복지정책과 기본소득 관련 논의에서는, 현금방식의 기본소득 즉각적 지급과 사회서비스의 우선적 확대 두 가지 경로에 대한 고민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대상이 청소년일 경우, 사회와 보호자의 책임 측면이 결합되어, 현금의 즉각적 지급이 사회와 보호자의 책임을 회피에 기여하는 것을 없을까? 라는 질문이 추가 제기 된다. 청소년의 놀 권리, 먹을 권리, 동등하게 공부할 권리, 그리고 꿈꿀 권리가 직접적 현금지급을 통해 어느 정도로 보장될 수 있을까? 이들의 권리를 보장시켜 나가는데 직접적 현금 지급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러한 고민은, 청소년이 현금을 지급받았을 때 단순히 목적에 맞게 (화장품이나 담배가 아닌)에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다르다. 잘못된 지출을 할 수 있으니 서비스가 지급되어야한다기보다, 우리는 현재 연령대에 맞춰 지원되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사회는 그 책임을 다하면서도, 기본소득의 직접적 지급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 성인으로 성숙할 기회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미안함 대신 권리의식

연구결과에서 청소년이 느끼는 공짜에 대한 ‘미안함’이 설명된 부분이 인상적이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은 수동적으로 길러지고 또 이들에게 수동성은 강요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일 수 있다. 이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의식을 형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 행복할 권리에 대해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 기본소득의 직접적 제공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권리가 사회에 대한 책임감 형성으로까지 발전하려면 청소년 기본소득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설계되어야 할 것인가.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가진 주체로 연대의식이 형성될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은 어떠한 모습으로 기대하는 것이 좋은가.

4. 한국 청소년의 특수성

한국 청소년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행복지수가 낮고, 스마트폰 등의 인터넷 노출도는 높은 와중에 또한 학업 스트레스를 높고 자살율 또한 세계 최고이다. 이러한 한국 사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특수성이 보다 정교하게 분석되어 청소년 기본소득의 직접제공이 필요성에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한국 청소년이 느끼는 수치심, 부모의 장시간 근로, 장시간을 학업시간에 투자하고 있는 이들에게 현금이 지급된다면 어느 지출항목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한국청소년 집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위기청소년뿐만 아니라 한국 청소년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향점과 그 필요성은 한국 청소년 전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청소년 문제를 모두 기본소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은 안전망(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 관점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을 지닌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던지고 설수 있는 기반으로서 기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에게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확대되어야 한다.

2017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 기본소득팀 연구발표회

청소년과 기본소득 실험의 만남

직접 현금 지급은 청소년의 삶을 어떻게 바꾸나

발 행 인권교육센터 '들'
발간일 2017 11월 14일
후 원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디자인 보통의 서재

문 의 인권교육센터 '들'

dlhredu@gmail.com | 02. 365. 5412